

황제(黃帝)는 바빌론에서 왔다*

— 라쿠페리의 ‘중국 문명 서래설’과 동아시아로의 전파 —

쑤장(孫江) | 일본 시즈오카문화예술대학 국제문화학부 교수
번역 박양신 · 이지영 | 한림과학원

■ 논문분야 중국 근대사

■ 주 제 어 중국인의 바빌론 기원설, 황제(黃帝), 테리앙 드 라쿠페리, 일본의 중국학, 중국어

■ 요약 문

본 논문은 유럽의 이론인 중국인의 바빌론 기원설을 근대적인 지식의 생산과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추적한다. 1880~1890년대 사이에 테리앙 드 라쿠페리(Terrien de Lacouperie)는 중국인들이 선사 시대에 메소포타미아의 칼데아(Chaldea) 지역에서 이주해 왔다는 학설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결론이 소위 “언어 과학(language science)”과 “역사 과학(history science)”이라 불리는 비교 방법에 기반을 둔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앗시리아학(Assyriology)에서 많은 단서를 가져왔지만 당대 일급 중국 학자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다. 그렇지만 일본의 중국 학자들은 1890~1910년대까지 라쿠페리의 이론에 주의를 기울였다. 구와바라 지쓰조(桑原隲藏)가 라쿠페리의 이론을 비판하긴 했지만 미야케 요네키치(三宅米吉)와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는 이 견해를 지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00년에 시라카와 지로(白河次郎)와 고쿠부 다네노리(國府種徳)는 자신들의 책 『중국문명사History of Chinese Civilization』에서 라쿠페리의 의견을 반복하는데 이 책은 후에 중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중국 지식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03년 『중국문명사』의 서로 다른 네 가지 중국어 판본이 도쿄와 상하이에서 출판되었다. 중국인의 바빌론 기원설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주로 반(反)만주(anti-Manchu)

* 접수(2010.4.27), 심사 및 수정(2010.6.10), 게재확정일(2010.6.14)

혁명가들과 중국의 보수주의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중국의 정체성을 세움으로써 민족 혁명(racial revolution)을 이끌고자 했다. 하지만 이들은 한(漢)민족(중국)이 중국인의 바빌론 기원설에 따라 이주민으로 묘사된다는 점을 발견하곤 그 즉시 주저 없이 이 견해를 폐기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다양한 텍스트들 간에 보이는 주요한 차이들을 간과하고 근대 중국의 역사를 단선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역사 서사에 의문을 제기한다.

1. 머리말

1894년 프랑스계 영국인 연구자 라쿠페리(Terrien de Lacouperie)는 그의 저서 『중국 상고(上古)문명의 서방기원』에서 중국 문명의 기원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¹⁾

기원전 2282년 양하(兩河) 유역의 칼테아 국왕 나크훈테(Nakhunte)는 바크족(Bak tribes)을 이끌고 칼테아를 출발하여 곤륜산을 넘고 몇 차례의 곤란을 겪으면서 중국 서북부의 황하 상류 지역에 도착했다. 그 후 바크족은 사방을 정벌하여 문명을 전파하고, 최종적으로 중국 역사의 기초를 세웠다.

나크훈테는 나이황티(Nai Hwangti)라고도 하는데, 곧 황제(黃帝)를 지칭한다. 바크족은 ‘百姓(Bak Sing)’의 다른 발음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국 역사에서 문명의 시조, 제왕 계보의 기점으로 추앙받는 황제(黃帝)가 멀리 서쪽에 있는 양하 유역의 바빌론에서 이주해 왔으며, 따라서 중국인(한인)의 조상은 바빌론의 칼테아인이었다는 라쿠페리의 중국 문명 서방기원설(이하 편

의상 ‘서래설西來說’로 약칭함)이다.

유럽의 동양학 연구에서 중국 문명의 기원이 서방에 있다는 논의는 종종 있어 왔고, 라쿠페리의 ‘서래설’은 당시나 그 이후에도 결코 주류적인 라차루스는 아니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라쿠페리의 ‘서래설’이 동아시아 세계에 전해진 뒤 일본과 중국에서 적지 않은 찬동자를 얻었다. 일본에서는 1900년 시라카와 지로(白河次郎), 고쿠부 다네노리(國府種徳)의 『支那文明史』가 라쿠페리의 ‘서래설’을 소개하고 있다. 메이지(明治)기에 출판된 중국의 역사를 소재로 한 수많은 대중용 서적 중 한 권이었던 이 책은 1903년에 중국어로 번역되었다. 이를 계기로 라쿠페리의 ‘서래설’은 중국 지식인 사이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켜 역사 교과서에 실릴 정도였다. 1920년대에 고고학의 발굴과 연구가 진전됨에 따라 라쿠페리의 ‘서래설’은 재차 주목을 받았으나, 마오핑린(繆鳳林),²⁾ 구제강(顧喆剛)은 이에 대해 비판과 의문을 제기했다.³⁾ 남경 국민정부 성립 후인 1929년 허빙송(何炳松),⁴⁾ 진자오즈(金兆梓)⁵⁾ 등도 잇달아 ‘서래설’을 비판했다. 비판의 화살은 라쿠페리의 ‘서래설’뿐만 아니라 청 말기에 ‘서래설’을 번역, 소개한 장즈유(蔣智由)에까지 미쳤다. 1930년 이후 라쿠페리의 ‘서래설’은 공공 지식을 보급하는 역사 교과서에서 그 모습을 감추었다.⁶⁾

2) 繆鳳林, 1925, 「中國民族西來辨」, 『學衡』 37期.

3) 顧喆剛, 鐘麟編, 胡適校, 1925, 『現代初中教科書本國史』(上冊), 商務印書館, 10~12쪽.

4) 何炳松, 1929, 「中華民族起源之新神話」, 『東方學誌』 26卷 2號.

5) 金兆梓, 1929, 「中國人種及文化之由來」, 『東方學誌』 26卷 24號.

6) 1930년 이후 라쿠페리의 ‘서래설’을 언급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지만, ‘서래설’은 연구자 사이에 일정한 영향력이 있다. 일례로 역사학자 류판수이(劉盼遂), 2002, 「中華人種西來新證」(1930), 『劉盼遂文集』, 北京師範大學出版社를 참조한다. 현대의 연구자 중에도 ‘서래설(바빌론설)’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白川靜, 1999, 『白川靜著作集6—神話と思想』, 平凡社, 162~168쪽; 森雅子, 2005, 『西王母의 原像—比較神話學試論』, 慶應義塾大學出版會; 新疆天山天池管理委員會 編, 2008, 『西王母文化研究集成』(論文卷)上, 廣西師範大學出版社. 민국 시기의 각종 토론을 망라한 논문으로는 王仲孚, 1976, 「‘中國民族西來說’之形成與消滅的分析」, 『中國歷史學會集刊』 8期(臺北)를 참조할 만하다.

1) Terrien de Lacouperie(1894), *Western Origin of the Early Chinese Civilisation from 2300 B.C. to 200 A.D.*, London: Asher.

1990년대 중국 근대 내셔널리즘의 기원 문제가 주목을 끄는 가운데 ‘서래설’은 다시 논의되었다.⁷⁾ 논의의 초점이 된 것은 황제는 청 말기에 어떻게 하여 내셔널리즘의 상징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제의 기원을 둘러싼 ‘서래설’도 논의되었다. 쑨룽지(孫隆基)에 따르면 청말 내셔널리즘의 상징적 부호였던 ‘황제’와 ‘지나(支那)’는 모두 일본으로부터 중국에 들어왔다.⁸⁾ 21세기에 들어서는 이시카와 요시히로(石川禎浩)가 일본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황제의 기원 및 황제 초상의 유래에 대해 분석하였고,⁹⁾ 양쓰신(楊思信)과 리판(李帆)은 청 말기 중국에 등장한 라쿠페리 ‘서래설’의 전파 상황을 정리했다.¹⁰⁾ 근년 요시카이 마사토(吉開將人)는 라쿠페리의 ‘서래설’과 묘족 ‘선주(先主)설’을 연관시켜 중국에서의 다민족 사관 형성에 대해 고찰했다.¹¹⁾ 한즈치(韓子奇, TZE-KI HON)는 중국에서의 ‘서래설’ 수용 과정을 개관하고 중국에서 국민국가(nation state)의 상상은 시간의 계제(階梯) 서열로부터 공간의 계제 서열로 변화의 과정을 겪었다고 지적한다.¹²⁾ 이들 연구와 거의 같은 시기에 필자도 근대 중국의 역사 기억과 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속에서 ‘서래설’의 문제를 거론했다.¹³⁾

7) 이런 연구는 많으며, 다음의 논문이 참조할 만하다. 沈松橋, 1997, 「我以我血薦軒轅—黃帝神話與晚清的國族建構」, 『臺灣社會研究季刊』 28期; 羅志田, 2002, 「包容儒學儒學, 諸子與黃帝的國學: 清季士人尋求民族認同象徵的努力」, 『臺大歷史學報』 29期; 坂元ひろ子, 2004, 「中國民族主義의神話—進化論, 人種觀, 博覽會事件」, 『思想』 849(1995), 『中國民族主義의神話』, 東京: 岩波書店에 수록.

8) 孫隆基, 2000, 「清季民族主義與黃帝崇拜之發明」, 『歷史研究』 3期.

9) 石川禎浩, 2002, 「20世紀初頭の中國における『黃帝』熱」, 『二十世紀研究』 3期.

10) 楊思信, 2003, 「拉克伯里的“中國文化西來說”及其在近代中國的反響」, 『中華文化論壇』 2期, 四川省社會科學院. 리판은 이 문제들에 대해서 몇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李帆, 2005, 「民族主義與國際認同之間—以劉師培的中國人種, 文明西來說爲例」, 『史學理論研究』 4期; 李帆, 2008, 「關於拉克伯里學說進入中國的若干問題」, 『西南民族大學學報』 2期.

11) 吉開將人, 2008, 「苗族史의近代—漢族西來說と多民族史觀」, 『北海道大學文學研究科紀要』 124期.

12) TZE-KI HON, “From a Hierarchy in Time to a Hierarchy in Space: Meanings of Sino-Babylonianism in Early 20th Century China,” *Modern China*지에 게재 예정.

13) 孫江, 2006, 「連續性與斷裂—清末民初歷史教科書里的黃帝敘述」, 王笛 主編, 『時間, 空間,

‘서래설’을 둘러싸고는 여전히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 오늘날 거의 돌아보지 않는 라쿠페리의 중국 문명 ‘서래설’은 어떤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는가? ‘서래설’이 중국에 수용될 때 일본은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청 말기 중국 지식인은 왜 ‘서래설’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서래설’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가? 지금까지 ‘서래설’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근대 중국 내셔널리즘의 인위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서래설’을 근대 중국 내셔널리즘의 직선적 시계열 속에 편입시켰다. 그리하여 서로 다른 텍스트 사이의 차이는 간과되고,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내셔널리즘이 생산, 재생산되는 과정은 단순화되기 일쑤였다.¹⁴⁾ 예를 들면, 1992년에 출판된 펑커(馮客)의 『근대중국의 종족 담론』이라는 책은 학계에 널리 영향을 주었다.¹⁵⁾ 라쿠페리의 ‘서래설’이 중국어 세계에 유입되는 과정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후속 저작들이 이 책의 서술을 답습하고 있다. 즉 라쿠페리의 『중국 상고문명의 서방기원』부터 시라카와와 고쿠부의 『지나문명사』(펑커는 *History of Chinese Culture*로 번역역함)까지, 그리고 『지나문명사』부터 『신민총보』에 연재된 장즈유(蔣智由)의 「중국인종고」까지가 이에 해당한다.¹⁶⁾ 그렇지만 사실은 결코 이처럼 간단하지 않다.

書寫』(新社會史3), 浙江人民出版社; 孫江, 2008, 「連續と斷絶—二十世紀中國歷史教科書における黃帝敘述」, 『中國研究月報』 10月號.

14) 예를 들면 F. 디코터(Frank Dikötter)의 『근대 중국의 종족 연설』에서 중국어권의 라쿠페리 서래설의 수용을 다음의 두 단계로 나누고 있다. 즉 ① 라쿠페리의 『중국 상고문명의 서방기원』에서 白河次郎, 國府種徳의 『支那文明史』로, ② 『支那文明史』에서 『新民叢報』에 연재된 觀雲(蔣智由)의 「中國人種考」로이다. 디코터의 관점은 그 후 대부분의 연구에서 답습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동아시아에서의 ‘서래설’의 수용 과정은 디코터가 파악한 것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Frank Dikötter(1992), *The Discourse of Race in Modern China*, London: Hurst & Company, p.120. 근대 중국에서의 ‘종족’ 지식의 형성에 관한 이 책의 주장에 대해 필자는 한 논문에서 다른 의견을 피력하였다. 孫江, 2009, 「差異化された皮膚—近代日中教科書における人種敘述」(한글), 『大東文化研究』 65號, 成鈞館大學.

15) 이 책에 대한 비판은 孫江, 2009, 「膚色の等級—近代日中教科書裏の人種敘述」, 『大東文化研究』 65號, 成鈞館大學 참조.

16) Frank Dikötter(1992), 앞의 책, p.120.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 본고에서는 ‘서래설’에 관한 필자의 관련 연구를 토대로¹⁷⁾ 종래의 연구에서 충분히 고찰되지 못한 라쿠페리 ‘서래설’의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그 뒤에 근대지(modern knowledge)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각도에서 메이지 말기의 일본과 청 말기의 중국에 ‘서래설’이 수용되는 과정에 대해 고찰한다.

2. ‘언어 과학’에서 ‘역사 과학’으로 – 라쿠페리의 중국 문명 ‘서래설’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라쿠페리의 ‘서래설’과는 대조적으로 라쿠페리 본인의 생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라쿠페리가 사망하고 얼마 되지 않은 1894년 6월, 그가 편집장을 맡았던 잡지 『바빌론과 동방기록The Babylonian and Oriental Record』에 라쿠페리의 동료이자 이 잡지 편집 보좌인 매켄지(H. M. Mackenzie)가 쓴 조문(弔文)이 게재되었다. 필자가 아는 한 이 글이 라쿠페리의 생애에 관한 가장 상세하고 신빙성 높은 기록이다.¹⁸⁾ 그 조문에 의하면 라쿠페리는 1844년 프랑스 북서부의 아브르(Havre)에서 태어났으나,¹⁹⁾ 라쿠페리는 종종 자신의 조상이 영국인이며 17세기에 영국 남서부의 콘월(Cornwall)에서 아브르로 이주했다고 말하곤 했다. 유소년 시절 라쿠페리는 공장을 경영하는 아버지와 함께 홍콩으로 이주하였고, 현지에서 모국어인 프랑스어에 필적할 정도로 유창한 중국어와 영어를 습득하고 영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익혔다. 프랑스에 돌아온 뒤 라쿠페리는 프랑스

의 법률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영국으로 이주해 영국 국적을 취득했다. 1874년 대영박물관의 버치(S. Birch) 박사와의 만남을 계기로 라쿠페리는 대영박물관의 푸올(R. S. Poole)과 더글러스(R. K. Douglas)와 친해졌고, 인도국(India Office)의 율(Henri Yule)로부터 재정적 원조를 받았다. 율은 당시 영국에서 중국 연구의 대표적 인물이며, 후술하듯이 그도 ‘서래설’의 지지자 중 하나였다. 라쿠페리는 한때 런던의 한 대학에서 인도차이나어 교수를 지냈으나 무급이었다. 경제적으로 결코 유복하다고는 할 수 없는 라쿠페리는 거의 모든 돈을 『바빌론과 동방기록』의 편찬과 출판에 썼다. 그 때문에 그의 사후 미망인은 곤궁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외국의 한두 대학에서 명예 학위를 수여받은 것이나 비명(碑銘) 학술상을 수여받은 것 이외에, ‘서래설’에 관한 수십 권에 이르는 책을 출판한 것이 라쿠페리의 주요한 적이었을 것이다.²⁰⁾

‘서래설’은 라쿠페리가 당시 유럽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앗시리아학 연구에 기초하여 저술한 『중국 상고문명의 서방기원』(1894)에서 제기한 가설이다. 418쪽에 이르는 이 책은 주로 라쿠페리가 1889~1894년에 걸쳐 『바빌론과 동방기록』에 발표한 논문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문헌 인용 부분을 본문을 상회하고, 전체적으로 연구서라기보다는 독서 노트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 책에서 라쿠페리는 중국의 역사를 여섯 시기로 나누어 바크족이 서아시아로부터 이주해 왔다는 때부터 후한(後漢), 삼국 시대까지를 대상으로, 중국이 앗시리아 바빌론, 이집트, 인도로부터 받은 영향에 대해 언어, 습속, 출토품 등의 각도에서 논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周易』에 아리안어(Aryan)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중국의 점성술은 칼데아의 점성술이나 요술에 가깝다. 그리고 중국의 신화에는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 바빌론의 신화의 흔적이 남아 있다. 바크족이 중국의 서북 지역에 거주하면서 발행한 금, 은, 동, 화폐 도안은 서아시아에 기원을 갖는 모성의 이미지에 기초한 것이다. 이들

17) 孫江, 2006, 앞의 논문 참조.

18) H. M. Mackenzie(1894), “Memorial Notice of Prof. Terrien de Lacouperie,” *The Babylonian and Oriental Record*, Vol.7 No.11, pp.262~264.

19) 라쿠페리의 출생 연도는 일반적으로 1845년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글에서는 Mackenzie의 조문에 따라 1844년으로 한다.

20) H. M. Mackenzie(1894), 앞의 논문, pp.263~264.

은 고대의 세 교역 루트—서방(新疆 경유), 서남(雲南, 四川 경유), 동해(山東 경유)—를 거쳐 전해진 것들이다. 서방의 문물과 습속은 이런 교역 루트를 통해서 전래된 것이다. 바크족은 육로를 통해 넘어왔고, “인도양의 무역인들은 산동 연해에 자신들의 이주지를 건설했다.”²¹⁾ 외래의 영향은 기나긴 역사 속에서 사람들에게 의해 잊혀졌다. 이 때문에 ‘중국인 중의 중국인’—공자—은 고대의 전통을 되살리려 했고, 『노자』, 『열자』, 『장자』 등의 책에는 모두 고대 전통을 찾으려는 흔적이 남아 있다.

제8장 이후는 그전 내용의 중복 혹은 보충이다. 제8장(264~290쪽)은 주로 서왕모(西王母)와 기원전 986년의 목천자(穆天子) 서정(西征)에 관한 고찰이다. 라쿠페리에 의하면 현대와 달리 고대 문헌 석에는 서왕모를 여성으로 묘사하는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서왕모는 황제가 바크족을 이끌고 투르크스탄을 통과할 때 보았던 꽃의 나라(Flowerly Land)이며, 요, 순, 우(堯, 舜, 禹)는 모두 서왕모와 관련이 있다. 중국의 고서적 『穆天子傳』이 그리고 있는 것은 목왕이 길고 험난한 여행을 거쳐 서왕모를 찾아갔을 때의 이야기이다. 제9장(291~315쪽)에서는 언어학과 동서 교통의 각도에서 ‘서래설’을 논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百姓’은 ‘백의姓’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칼데아어로 왕이나 부를 상징하는 Bak Sing에서 유래한 말이다. 제10장(316~337쪽)에서는 바크족이 서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것에 관한 전설을 고찰하고 있다. 제11장(338~372쪽)은 제3장, 제4장, 제7장, 제8장, 제9장의 내용에 대한 보충이다. 제12장(378~397쪽)은 황제가 바크족을 이끌고 중국에 도착했다고 여겨지는 해인 기원전 2282년에서 서력 220년까지의 시기에 전개된 토착 중국인과 외래 문명의 관계에 관한 연표이다. 이상이 라쿠페리 『중국 상고문명의 서방기원』의 개요이다.

라쿠페리의 생전이나 사후에 『중국 상고문명의 서방기원』을 포함한 라쿠페리의 ‘서래설’ 관련 저작이나 논문에 대한 유럽의 동양 학자의 반응은

21) Terrien de Lacouperie(1894), 앞의 책, p.1, p.112.

냉담하였다. 맥켄지는 앞서 언급한 조문 속에서 라쿠페리의 학문 연구는 동시대 영국 학계에 대한 ‘침묵의 항의(silent protest)’였다고 평했다.²²⁾ 1888년 6월, 라쿠페리의 ‘서래설’의 지지자이며 앗시리아학의 대표적 연구자인 세이스(Archibald Henry Sayce)는 『네이처Nature』에 게재된 논문 속에서 라쿠페리가 『왕립 아시아학회지Th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에 발표한 『易經』 및 한자 출현 이전의 중국 문자에 관한 논문을 소개하고 라쿠페리의 ‘서래설’을 높이 평가한 뒤, “나는 동양 학자들에게 라쿠페리의 결론을 입증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바빌론 연구에서 라쿠페리는 앗시리아 학자들의 비판을 두려워할 걱정은 없다”고 쓰고 있다.²³⁾

그러나 세이스의 글은 동양 학계에 영향을 주지도 못했고 반대로 비판을 받았다. 예컨대 유럽의 동양 학자들은 라쿠페리의 연구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국의 고전 ‘五經’을 영역한 옥스퍼드대학 교수 레그(James Legge)—라쿠페리는 『중국 상고문명의 서방기원』에서 그가 멸시의 눈으로 자신의 ‘서래설’을 보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는 중국의 문자가 그보다 뒷시대에 출현한 문자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라쿠페리의 비교언어학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틀렸다고 지적했다.²⁴⁾ 1890년 3월, 레그는 빅토리아학원(Victoria Institute)에 제출한 논문 속에서 황제에 관한 라쿠페리의 논의를 비판했다.²⁵⁾ 이에 대해 라쿠페리는 레그의 글은 ‘비과학적 언어’로 쓰인 통속적인 것이라고 반격했다.²⁶⁾

22) H. M. Mackenzie(1894), 앞의 논문, p.263.

23) Terrien de Lacouperie(1888), *The Babylonian and Oriental Record*, Vol.2 No.9, pp.218~220.

24) Terrien de Lacouperie(1894), 앞의 책, p.293.

25) 레그는 중국인(Chinese tribe)은 노아의 자손이며, 서방에서 황하 상류로 이주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James Legge(1865), *The Chinese Classics*, Vol.III. Part 1, Hong Kong: London Missionary Society's Printing Office, pp.189~190.

26) Terrien de Lacouperie(1890), “The Onomastic Similarity of Nai Hwang-ti of China and Nakhunte of Susiana,” *The Babylonian and Oriental Record*, Vol.4 No.11, p.256.

라쿠페리를 비판하는 또 한 사람의 동양 학자는 라이텐대학 교수 슐레겔(Gustave Schlegel)이었다. 1891년 라쿠페리는 『바빌론과 동방기록』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중국의 점성술을 적어도 14,671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한 슐레겔의 두터운 저서(*Uranographie Chinoise*)의 논점을 비판하였다.²⁷⁾ 이에 대해 슐레겔은 코르디에(Hanri Cordier)와 함께 편집한 『通報 T'oung Pao』에 반론하는 논문을 실었다. 그 속에서 슐레겔은 자신의 생각은 중국 측 문헌에 기초한 것이며, 확고한 근거가 없는 한 중국 문명이 인도, 칼데아 혹은 그 밖의 서방의 나라에서 수입되었다는 생각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라쿠페리의 '서래설'을 인정하는 "진짜 동양 학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일축했다.²⁸⁾

라쿠페리가 유럽의 동양학 연구를 대표하는 두 학자인 레그와 슐레겔의 비판을 받은 사실에서 우리는 '서래설'이 동양학의 주류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쿠페리의 '서래설' 자체의 진위가 아니라, '서래설'의 내용과 '서래설'이 나오게 된 학문적 배경을 밝히는 것이다.

라쿠페리는 전술한 『중국 상고문명의 서방기원』 외에도 수많은 '서래설' 관련 저작과 논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중국 상고문명의 서방기원』 이외의 주된 저작에 나오는 '서래설' 관련 부분의 개요이다.

1) 『중국문명의 초기 역사』: 이 책은 라쿠페리가 대영박물관에서 행했던 강연에 기초해 편찬된 것이다. 그 속에서 라쿠페리는 중국의 언어와 서적의 특징에 대해 소개하고, 자신이 오랫동안 '언어 과학'의 방법을 사용해 고대의 한자와 아카드어(Akkadian), 엘람어(Susian, Elamite)와의 관련성을 밝혔다고 서술

하고 있다.²⁹⁾ 라쿠페리는 중국 문화와 칼데아 문화(Chaldean Culture)의 유사성에 대해 기술한 뒤 황제의 신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증하고 있다. 즉 중국어에서 *Hoang-ti*는 본래 *Kon-ti*라고 발음한다. 중국의 전설에 따르면 황제 가족의 성은 *Nai*(본래 *Nan* 혹은 *Nak*)이며, 이는 *Nak-kon-ti*에서 유래한 것이다. *Nak-kon-ti*는 엘람어 문헌 속에 나오는 여러 신 중 최고의 신인 *Nakbunta* 또는 *Nakbunte*와 놀랄 정도로 일치한다.³⁰⁾ 이러한 비교언어학의 방법을 사용하여 라쿠페리는 倉籙(*Ts'ang Hieh*), 炎帝, 중국 고대의 정치 제도와 풍속 관습은 모두 바빌론 문명과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강연은 훗날의 '서래설'의 원형이다.

2) 『중국인 이전의 중국어』: 이 책은 한족 이전의 중국 토착 민족의 언어에 관한 저작이다.³¹⁾ 여기서 라쿠페리는 '언어 과학'의 분류법과 음운 비교법을 사용하여 초기의 한족이나 외부 침입자인 바크족의 언어 속에 있는 토착 언어의 요소를 분석하고, 중국의 선주민(특히 묘족)과 인도차이나의 여러 민족(예컨대 미얀마의 *Karengs*)의 언어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라쿠페리가 생각하기에 인도차이나 인구의 대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중국 선주민족의 인종적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³²⁾

3) 『중국 최고(最古)의 책—易經과 그 저자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1882년 1월 *The Athenaeum*지에 게재되었다. 당시 유럽의 동양 학계에서는 『역경』을 예언서로 간주하고 있었으나, 라쿠페리는 이를 "칼데아의 책, 바빌론의 책 혹은

27) Terrien de Lacouperie(1891), "From Ancient Chaldea and Elam to Early China: A Hisroical Loan of Culture," *The Babylonian and Oriental Record*, Vol.5 No.4, p.84.

28) Gustave Schlegel(1891), "China or Elam," *T'oung Pao*, Vol.11, pp.244~246.

29) Terrien de Lacouperie(1880), *Early History of the Chinese Civilisation*, London, p.18, pp.20~21.

30) Terrien de Lacouperie(1880), 앞의 책, p.27.

31) Terrien de Lacouperie(1887), *The Languages of China Before the Chinese*, London. 라쿠페리에에 의하면 이 책은 1889년에 비명 학술상(*Académie des Inscriptions*)을 수여받았다. Terrien de Lacouperie(1894), 앞의 책, p.291.

32) Terrien de Lacouperie(1887), 앞의 책, p.14.

외국어 사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³³⁾ 『역경』과 중국 문명의 서방 기원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 라쿠페리는 “기원전 2282년 황제가 바크족을 이끌고 섬서(陝西)의 황하 상류 지역에 왔을 때 사용했던 언어는 아카드어 및 엘람어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그것이 『역경』에 기록되어 있는 서방 언어라고 기술하였다.³⁴⁾

4) 『중국화폐편람』: 이 책은 대영박물관의 고대 화폐 수장품을 근거로 하여 중국의 상고사를 언급한 것이다. 책 뒤에는 중국 상고사 연표가 붙어 있다. 라쿠페리에 따르면 기원전 2282년 황제는 즉위 15년째에 바크족의 16번째 수령으로서 부락의 사람들을 데리고 섬서의 황하 유역에 도착하여 제사 의식을 거행했다. 바크족은 글을 쓰는 데 뛰어나고 금, 백금, 은, 동, 주석 등으로 무역을 하였다.³⁵⁾

5) 『중앙아시아와 동아시아 문자의 기원』: 이 책 속에서 라쿠페리는 아시아 문자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 소개하고, 바크족이 서방에서 동으로 이동한 것, 중국의 문물이나 전설과 인도, 인도차이나 반도의 그것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하였다.³⁶⁾

이상과 같이 라쿠페리는 언어, 문헌, 문물의 세 각도에서 ‘서래설’을 논증했다. 그는 자신이 사용한 것이 ‘언어 과학’과 ‘역사 과학’의 방법임에 자신을 갖고 있었다. 이는 당시 영국 학계에서 유행하고 있던 경험주의의 연구

수법이다. 라쿠페리는 ‘서래설’의 근거로서 당시 유행하던 학문인 앗시리아 학의 최신 연구 성과를 인용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그의 ‘서래설’의 지지자인 세이스는 앗시리아 학자 중 한 사람이었다. 라쿠페리가 편집한 『바빌론과 동방기록』의 주변에는 바빌론이나 중국, 인도 문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들었다. 라쿠페리의 중국 문명 ‘서래설’은 이 사람들에게 의해 공유된 지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유럽의 동양학 연구를 시야에 넣으면 ‘서래설’은 단순히 라쿠페리의 중국 고대사 연구와 앗시리아 연구 사이의 대화의 산물이 아니다. ‘서래설’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시나학(Sinology), 즉 일본에서 ‘동양학’이라 불리는 학문이었다. 유럽의 중국 문명 ‘서래설’에 대해서는 명말 청초에 중국에 왔던 예수회 소속 선교사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앞서 소개한 한치(韓子壽) 논문에도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역경』은 신이 발명한 수학 기호였다고 하는 라쿠페리의 주장은 프랑스인 선교사 부베(Joachim Bouvet, 중국명 白晉)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³⁷⁾ 18세기 프랑스에서는 중국 문명은 이집트에서 기원했다고 하는 ‘서래설’이 등장하였으며, 바빌론 기원설을 논증하는 라쿠페리의 방법은 이 이집트 기원설의 그것과 유사했다.³⁸⁾ 그러나 프랑스의 동양학 연구자들은 19세기 40~60년대에 이미 한자 기원의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하고 있었다. 오페르(J. Oppert) 박사는 바빌론의 문자와 한자 사이의 관계, 르노르망(Francois Lenormant)은 한자와 이집트 문자와의 관계, 쇼티에(G. Chauthier) 등은 한자, 이집트 문자, 바빌론 문자 3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논했다. 실제로 라쿠페리는 자신이 이 연구들로부터 많은 힌트를 얻었음을 인정하고 있다.³⁹⁾

33) Terrien de Lacouperie(1892), *The Oldest Book of the Chinese, The Yb King and its Authors Vol. 1, History and Method*, London, p.vi.

34) Terrien de Lacouperie(1892), 앞의 책, p.106.

35) Terrien de Lacouperie(1892), *Catalogue of Chinese Coins from the VIIIth Cent.B.C. to A.D.621*, London and Paris, Introduction VIII.

36) Terrien de Lacouperie(1894), *Beginnings of Writing in Central and Eastern Asia, or Notes on 450 Embryo-Writings and Scripts*, London, pp.21~23.

37) David E. Mungello(1985), *Curious Land: Jesuit Accommodation and the Origins of Sinology*, Stuttgart: Franz Steiner Verlag Wiesbaden GmbH, pp.74~105.

38) 後藤末雄, 矢澤利彦 校訂, 1969, 『中國思想のフランス西漸』2, 平凡社, 262~286쪽.

39) Terrien de Lacouperie(1888), “The Old Babylonian Characters and Their Chinese Derivates,” *The Babylonian and Oriental Record*, Vol.2 No.4, p.74. 또 라쿠페리에 언급

또 하나의 중요 인물은 선교사 에드킨스(Joseph Edkins, 1823~1905, 중국명 艾約瑟)이다. 라쿠페리는 종종 에드킨스의 연구를 대놓고 비판했지만, 분명 그는 에드킨스의 '서래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에드킨스는 1871년 언어학의 관점에서 중국어와 서아시아 언어와의 관계를 논한 저서를 출판하여, 중국인이 기원전 3천 년에 Mohammedan Tartary에서 감숙(甘肅), 섬서(陝西)로 이주해 황하 서안에 이주지를 건설했다고 명언하였다.⁴⁰⁾ 그는 『教務雜誌 Chinese Recorder』에 논문을 발표하여 중국어와 헤브라이어 사이의 관련성을 논하였고,⁴¹⁾ 『中國評論 The China Review』에 바빌론 문자와 한자의 관계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⁴²⁾ 그러나 에드킨스와 라쿠페리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에드킨스가 동서 언어 사이의 공통성을 강조하는 데 비해,⁴³⁾ 라쿠페리는 시계열적으로 양자의 전후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또한 황제에 대해서도 라쿠페리는 중국 문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을 바빌론의 출토품과 연관지어 황제가 바크족을 이끌고 바빌론에서 중국으로 이주해 왔다는 스토리를 만들어 냈다. 이와 대조적으로 에드킨스는 황제라는 인물은 “원래 書와 詩(『尚書』와 『詩經』-인용자)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황제의 실재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⁴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라쿠페리의 '서래설'은 레그와 슐레겔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그가 당시 유럽의 동양 학계에서 완전히 고립된 것은

아니었다. 라쿠페리가 자신의 책 속에서 감사의 글을 바친 더글러스는 오류 투성이의 중국어 사전 『華語鑑』의 서문에서 중국인이 기원전 2300년경 바빌론의 문화를 가지고 중국에 이주했다는 설은 “현재 이미 널리 인정받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⁴⁵⁾ 또 코르디에는 라쿠페리의 '서래설'을 일가견으로 소개하고 있다.⁴⁶⁾ 그는 라쿠페리의 '서래설'이 거의 주목받지 못할 때 자신의 연구 속에서 라쿠페리의 '서래설'을 선행 연구로 언급하고,⁴⁷⁾ 라쿠페리의 지지자이자 원조자인 율의 저작을 수정할 때에 '서래설'에 관한 내용을 첨가하였다.⁴⁸⁾

라쿠페리는 그의 개인색이 강하게 드러나 있는 『바빌론과 동방기록』의 편찬을 통해 중국 문명의 '서래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그의 사후 이 잡지는 급속히 구심력을 잃고 마침내 1900년 휴간하게 되었다.

3. 오리엔탈리즘과 동양학 사이

- 메이지 일본에서 '서래설'의 수용

1894년 2월 23일,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가 주재하는 『國民之友』의 '해외사조란'에 게재된 기사 「지나(支那) 인종은 바빌론인이다」는 영문 기사 「지나 인종에 관한 신지식」을 인용하는 형태로 중국 인종의 바빌론 기원설

되어 있지 않는 이하의 G. Chauthier(1859), *Histoire des Relations Politiques de la Chine avec les puissances Occidentales*, Paris, pp.6~7 참조.

40) Joseph Edkins(1871), *China's Place in Philology: An Attempt to Show that the Languages of Europe and Asia Have a Common Origin*, London, p.31.

41) Joseph Edkins, "Connection of Chinese and Hebrew," *The Chinese Recorder*, 1871~1872.

42) 라쿠페리는 에드킨스가 *The China Review*에 발표한 몇몇 글을 언급했다. 실제로 서래설에 관해서 에드킨스가 발표한 글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논하기로 한다.

43) 艾約瑟, 1900, 『西學啓蒙十六種, 西學略述』卷二, 上海: 圖書集成印書局.

44) 艾約瑟, 1891, 「論黃帝」, 『萬國公報』(十九).

45) Robert K. Douglas(1889), *A Chinese Manual*, London: Sampson Low, Marston & Company, p.13.

46) Henri Cordier(1892), "Half A Decade of Chinese Studies(1886~1891)," *T'oung Pao*, Vol.3, pp.548~549.

47) Henri Cordier(1920), *Histoire Générale de la Chine*, Paris: Librairie Paul Geuthner, pp.27~28.

48) Henry Yule(new edition by Henri Cordier)(1915), *Catbay and the Way Thither: Being a Collection of Medieval Notices of China*, Vol.1, London, p.8; 헨리·요르 著, 안리·콜 데이코補, 東亞史研究會 編, 1944, 『東西交渉史: 支那及び支那への道』, 帝國書院, 15~18쪽.

을 소개하고 있다.⁴⁹⁾ 그러나 인용 부분의 내용은 원래의 영문 기사와 큰 차이가 있다. 영문 기사는 1892년 12월 *Harper's New Monthly Magazine*에 게재된 맥도웰(McDowell)의 「중국인에 관한 신관점」이라는 제목의 기사이다.⁵⁰⁾ 이 글은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중국인이 새해를 맞이하는 풍습을 소개하는 것으로, 중국 인종의 기원에 관한 신발견은 아니다. 이 기사가 일본의 잡지에 인용된 것은 바빌론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門神 gods of the door'은 곧 바빌론력(曆)에 있는 쌍둥이좌이다. 그리고 그에 관한 주석 속에 라쿠페리의 이름이 등장한다. 즉 『國民之友』지의 글은 원문의 취지를 벗어나 「중국인에 관한 신관점」이라는 제명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라쿠페리의 『중국 상고문명의 서방기원』 출판과 같은 해에 '서래설'은 이미 일본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2년 뒤인 1896년 3월 구와바라 지쓰조(桑原 隲藏, 1870~1931)는 『國民之友』지에 「지나(支那)의 태고에 관한 동양 학자의 설에 대하여」라는 장문의 글을 연재하여 '서래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⁵¹⁾ 그 속에서 구와바라는 유럽의 동양학 연구는 이집트, 바빌론의 역사적 기원을 끊임없이 과거로 소급하는 반면, 중국의 역사를 점차 짧게 만듦으로써 후자가 지중해에서 전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연구에는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로 중국 상고사의 기년(紀年)이 정확하고 신빙성이 높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집트 학자가 그 나라의 연대를 정함에 있어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마네소의 기록은 남아 있는 부분(殘編)이 적은 데

다 기년(紀年)이 매우 부정확하여 그 역사상의 가치를 동일하게 논할 수 없다.”, “이를 저 이집트, 바빌론의 연대가 막연한 것에 비하면 매우 신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⁵²⁾ 둘째로 구와바라는 '서래설'이 주장하는 중국 상고 문명이 서방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이들 사이의 교통의 유무는 그들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중국 문명이 모두 이집트 혹은 칼데아(迦勒底亞)에서 전래했음을 증명하는 데 아무런 효력도 없다.”⁵³⁾ “대저 이러한 많은 전설을 통해 볼 때 단순히 사회학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중국 인종의 고향은 오늘날의 동달단(東鞏鞏)지방에 존재했음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⁵⁴⁾고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호 (Ferdinand von Richthofen)의 중국 문명 '중앙아시아 기원설'에 대해 “나는 두셋 견해를 달리하는 점이 없지 않으나 대체로는 그의 설에 찬동한다”⁵⁵⁾고 하였다. 즉 구와바라는 라쿠페리의 '서래설'을 비판하고, 대신 중국 문명의 '중앙아시아 기원설'(= '동달단 지방')을 주창했던 것이다.⁵⁶⁾

구와바라의 논문이 발표된 지 수개월 뒤 미야케 요네키치(三宅米吉, 1860~1929)는 1896년 8월호 『史學雜誌』에 라쿠페리의 '서래설'을 소개했다.⁵⁷⁾ 미야케는 “내가 영국에 있을 때 처음으로 이 잡지를 본 이후 항상 구독하여 라쿠페리 씨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주목했는데, 재작년(1894년 -인용자)에 이르러 불행히도 그가 사망하여 연구가 중도에 중단되었으니 실로 아쉬운 일이다. 그가 사망한 해에 이 잡지에 실린 그의 글에다 몇 장을 첨가하여 *Western Origin of the Early Chinese Civilization*(Asher & Co.

49) 『國民之友』 182(1893), 38쪽.

50) Henry Burden McDowell(1892), “A New Light on the Chinese,” *Harper's New Monthly Magazine*, Vol.LXXXVI No.DXI.

51) 桑原 隲藏, 1896, 「支那ノ太古ニ關スル東洋學者ノ所說ニ就キ」, 『國民之友』 287號, 617쪽, 121~136쪽; 『國民之友』 288號, 676쪽, 678~680쪽. 『桑原 隲藏全集』一卷(1968), 東京: 岩波書店에 수록.

52) 桑原 隲藏, 1896, 앞의 글, 617쪽.

53) 桑原 隲藏, 1896, 앞의 글, 『國民之友』 288號, 676쪽.

54) 桑原 隲藏, 1896, 앞의 글, 678쪽.

55) 桑原 隲藏, 1896, 앞의 글, 679~680쪽.

56) 구와바라는 『東洋史教授資料』에서 중앙아시아 기원설을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다. 桑原 隲藏, 1923(1914年 初版), 『東洋史教授資料(增補)』, 東京: 東京開成館.

57) 三宅米吉, 1896, 「ラクウベリ氏が支那古代の開化の起原に就ての説」, 『史學雜誌』 7卷 8號, 69~70쪽.

London)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행하였으니, 그의 설의 대의를 알고자 하는 자는 이 책을 참고하기 바란다”라고 쓰고 있다. 그는 ‘서래설’에 찬동하는 입장에서 중국 문화는 점차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돌연히 개화했기 때문에 “이는 소위 성인이라는 자가 발명한 것이 아니라 타국에서 수입된 것임은 의심할 바 없다”는 라쿠페리의 관점을 반복하고,⁵⁸⁾ “대체로 말하자면 충분히 믿을 수 없는 점은 있지만, 학술, 제도 등 서로 동일한 점이 매우 많다. 특히 일치하는 것은 양자가 태고에 이미 관계가 있었다는 확증을 얻은 것은 참으로 주목할 만하다”고 기술하고 있다.⁵⁹⁾ 즉 미야케는 라쿠페리의 ‘서래설’에 완전히 찬동한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는 찬성의 입장이었다. 훗날 미야케의 제자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는 전기 속에서 이 논문을 미야케의 서역 연구의 ‘여파’라고 자리매김하고 있다.⁶⁰⁾

동시대 일본의 동양사 연구자 중에서 시라토리는 라쿠페리의 저작을 가장 자세하게 연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가 1897년 이후에 쓴 논문에는 라쿠페리의 이름이 종종 등장한다.⁶¹⁾ 그는 흉노가 정치 집단이지 민족 집단이 아니라는 의견을 비롯한 라쿠페리의 몇몇 견해를 비판했지만 결국에는 라쿠페리의 관점을 수용했다.⁶²⁾ 1909년 8월 시라토리는 『東洋時報』에 게재된 논문 「지나 고전(古傳說)의 연구」 속에서 요, 순, 우(堯, 舜, 禹)는 ‘3재(三才)’ 사상에 기초한 ‘전설 구조’ 속의 인물이며, 각기 천, 지, 인을 담당하는 자라고 주

장했다.⁶³⁾ 이에 대해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는 시라토리의 주장을 ‘요, 순, 우의 말살론’이라고 비판하였고,⁶⁴⁾ 이 때문에 양자 사이에 필전이 전개되었다. 이 두 사안은 보통 ‘의고’라는 맥락에 놓였고, 사실 이 논쟁의 배후에도 ‘서래설’의 그림자가 있다. 이 글이 발표되기 전인 1908년에 시라토리는 사학회에서 행한 강연에서 고대 중국 문헌의 서왕모 서술에 대해 서왕모는 몇 세대에 걸쳐 중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중국인의 서역에 관한 지식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서왕모의 위치도 따라서 서쪽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했다.⁶⁵⁾ 1912년 2월 시라토리는 동양 협회의 강연에서 3재 사상의 근거로서 천·지·인 3재, 음양, 28宿, 五星, 五行 등은 모두 서아시아의 칼데아와 이란, 인도에서 유래했다고 말했다.⁶⁶⁾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라토리가 지금부터 3천 년 이전의 중국 역사는 모두 근거가 없는 것이고, 그 이후의 역사는 서아시아에서 전래한 것과 중국 본토의 것이 혼합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한 점이다.⁶⁷⁾ 문명 진화의 시간축에 따라 중국 상고의 역사를 메소포타미아 문명 뒤에 위치 짓는다는 점에서 시라토리와 라쿠페리는 공통되고 있다.⁶⁸⁾ 그러나 양자 사이에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즉 라쿠페리가 중국의 상고 시대에 ‘역사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 ‘서래설’을 주창한 것에 비해 시라토리는 중국의 상고사 자체의 ‘실재성’을 부정한 채 중국의 역사를 ‘서래설’의 문

58) 三宅米吉, 1896, 앞의 글, 70쪽.

59) 三宅米吉, 1896, 앞의 글, 77쪽.

60) 白鳥庫吉, 1971, 「文學博士三宅米吉小傳」, 『白鳥庫吉著作集』 10卷, 岩波書店, 193쪽.

61) 『白鳥庫吉著作集』 四卷과 六卷 참조.

62) 예를 들면, 한혈마(汗血馬)가 나는 것으로 유명한 대원국(大宛國)의 도성인 귀산성(貴山城)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시라토리는 메이지 30년에 쓴 논문에서 라쿠페리 등이 귀산이 ‘Kāsān’이라고 본 것을 비판했다. 그러나 1916년에 와서 그는 입장을 바꾸어 라쿠페리의 관점에 동의했다. 白鳥庫吉, 1900, 1901, 「孫に就いての考」(『史學雜誌』 11編 11號, 12編 1·2號), 『白鳥庫吉著作集』 6卷, 34~35쪽; 白鳥庫吉, 1916, 「大宛國考」(『東洋學報』 6卷 1號), 『白鳥庫吉著作集』 6卷, 229쪽.

63) 白鳥庫吉, 1909, 「支那古傳說の研究」, 『東洋時報』 131, 『白鳥庫吉著作集』 8卷, 381~391쪽.

64) 林泰輔의 비판 글은 『支那上代之研究』(進光社, 1927年版, 1944年 再版)에 수록.

65) 白鳥庫吉, 1908, 「西王母に就いて」, 『史學雜誌』 19編 3號, 『白鳥庫吉著作集』 9卷, 146~147쪽.

66) 白鳥庫吉, 1912, 「『尚書』の高等批評(特に堯舜禹に就いて)」, 『東亞研究』 2卷 4號, 『白鳥庫吉著作集』 10卷, 393~398쪽.

67) “이 고유한 사상과 오행 등 새로 들어온 사상이 합해질 때 그것이 종교적 방면으로 연결된 것은 방식(方士)의 부류이다. 후에 도교, 풍수설이 되었다. 도덕적 방면으로 연결된 것은 유교, 역(易)이다. 『書經』, 『禮記』는 오행의 요소가 많고, 공자의 설은 도덕적 요소가 풍부하다.” 白鳥庫吉, 1912, 앞의 논문, 398쪽.

68) Tanaka는 그의 저서에서 白鳥庫吉가 라쿠페리의 ‘서래설’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 시라토리는 그것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Stefan Tanaka(1993), *Japan's Ori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90.

맥에서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라쿠페리는 동서 문명 사이에 유사 점이 있다는 데서 출발하여 “황제는 바빌론에서 왔다”는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만들어 냈다. 한편 시라토리의 중국 문명 ‘서래설’에서는 황제라는 주인공—라쿠페리 ‘서래설’의 중심 내용—은 모습을 감추고 있다. 결론은 전술한 에드킨스의 그것과 유사하다.

라쿠페리 ‘서래설’에 대한 구와바라, 미야케, 시라토리의 서로 다른 태도에는 19~20세기에 걸친 세기 전환기 일본의 중국사 서술에 존재하는 유럽의 오리엔탈리즘이 미묘하게 반영되어 있다. 구와바라가 중국의 텍스트와 중국사의 문맥에 따라 역사 서술을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시라토리는 중국의 고대 문헌 자체를 상대화하고, 거기에 ‘서래’의 요소를 끌어들이었다. 이는 시라토리와 하야시의 논쟁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서래설’이 유럽에서 전래된 새로운 지식으로서 일본의 동양 사학계에서 주목을 받았다고는 해도 당시 출판된 중국사, 동양사 교과서에서는 아직 ‘상식’으로 취급되고 있지는 않았다. 1888년에 출판된 나카 미치요(那珂通世)의 『支那通史』나 그 10년 뒤에 간행된 구와바라의 『中等東洋史』도 ‘서래설’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⁶⁹⁾ 반면 ‘서래설’은 대중용 책에는 등장하고 있다. 1900년 6월 박문관의 제국백과전서의 한 권으로 출판된 시라카와 지로, 고쿠부 다네노리의 『支那文明史』는 라쿠페리의 ‘서래설’을 전면적으로 답습하고 있다.⁷⁰⁾ 이 『支那文明史』야말로 훗날 ‘서래설’이 중국에 수용되는 직접적 계기였다.

『支那文明史』의 제11장 중 앞의 제3장이 유럽인의 ‘서래설’과 관련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태고의 동양사가 중국 문명과 메소포타미아문명이 융합하여 구성되었으며, 중국에서 가장 오랜 민족 중 하나인 한족은 황제를 따라

칼데아에서 파미르고원을 넘어 아시아 대륙의 대평원을 거쳐 황하 유역으로 이주했다. 황제는 문명을 퍼트리고 황하를 건너 예부터 그곳에 있던 묘족을 중국 본토에서 몰아냈다고 기술하고 있다.⁷¹⁾ 제2장에서는 반고(盤古)에서 복희(伏羲)에 이르는 신화의 역사를 중국 상고의 역사로 보고, 구약성서의 기년에 따라 복희는 대홍수에서 목숨을 건진 노아의 장남 셈(Sem)의 자손으로 중국 하남성 개봉부(開封府)로 이주하여 ‘식민’과 ‘교화’의 역사를 시작했다고 하고, 神農, 황제 및 그 후계자를 거쳐 우(禹)는 중국 최초의 왕조를 세웠다고 기술한다. 주목할 것은 여기서의 기술이 기독교의 기술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제3장에서는 황제보다 뒤시대의 중국인은 바빌론에서 이주해 왔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중국 문명은 아시아의 서북부에 돌연 나타난 것으로, 그 이전의 문명의 영향을 받은 것은 확실하며, 이는 중국 상고의 유물이나 전설로 증명된다. 그리고 라쿠페리의 ‘서래설’에 따라서 황제가 바크족을 이끌고 투르크스탄을 거쳐 곤륜(崑崙), 즉 ‘꽃의 나라’인 동방으로 왔다고 기술한다. 이 장은 라쿠페리 『중국 상고문명의 서방기원』의 제5장에 의거해 학문과 기술, 문자와 문학, 제도와 신앙, 전설의 네 각도에서 ‘서래설’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 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支那文明史』의 제3장의 내용이 청말 민국기의 중국 지식인들이 ‘서래설’을 받아들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4. 정체성과 외래성의 불일치—청말 민국기 ‘서래설’의 수용

청 말기 중국의 지식인이 ‘서래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메이지기 일본에서 출판된 세계사 서적이었다. 오카모토 간스케(岡本監輔)가 한문으로

69) 那珂通世 編, 1888(9月 初版, 12月 再版), 『支那通史』, 東京: 大日本圖書株式會社; 桑原隲藏, 1968, 『中等東洋史』(1898), 『桑原隲藏全集』四卷, 岩波書店, 27쪽.

70) 白河次郎·國府種徳, 1903, 『支那文明史』, 博文館.

71) 白河次郎·國府種徳, 1903, 앞의 책, 4쪽.

쓴 『萬國史記』는 1879년 출판되자마자 중국에 전래되어 복수의 번각본이 간행되었다.⁷²⁾ 저자는 기독교의 인류기원설에 의거하여 “아시아(바빌론 일대를 가리킴-인용자)는 인류 탄생의 땅이며, 다른 주의 인민은 모두 이곳에서부터 이주했다”고 쓰고 있다. 이에 대해 탕차이창(唐才常)은 1897년에 발표한 「亞細亞種類考」에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는 ‘아시아’는 아시아주를 가리키며 유럽인이 말하고 있는 바빌론이나 유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한 후, “인류의 발상(發祥)에 관해 말하자면 중국이 가장 빠르고 다른 나라는 모두 중국에서 이주한 것이다. 이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유럽인이 노아의 자손이 아시아 대륙으로 흩어졌다고 한 것은 (유럽인이) 자기 인종의 번식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고 비판하였다.⁷³⁾ ‘서래설’이 중국 지식인에게 공감을 얻은 것은 20세기 초의 일이다. 당시 메이지 일본에서 전래된 중국 문명의 기원에 관한 학설은 적어도 다음의 셋으로 나뉜다. 첫째는 전술한 나카, 구와바라 등의 ‘서북 기원설’이다. 이는 일본의 동양사 교과서 및 청 말기 역사 교과서에서 흔히 보이는 기술이다.⁷⁴⁾ 둘째는 ‘파미르 기원설’이다. 예컨대 린카이칭(林楷青)이 번역한 『人種誌』(鳥居龍藏 編)에 “그 인민의 시조는 5천 년 전에 파미르고원의 동쪽 곤륜산 부근 지방에서 황하, 양자강으로 퍼져 점차 중국의 서북으로 이주했다”고 서술되어 있다.⁷⁵⁾ 셋째는 라쿠페리의 ‘바빌론 기원설’이다. 이 중 ‘서북 기원설’과 ‘파미르 기원설’은 중국 문헌의 기술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청 말의 지식인에게 있어 제1설과 제2설은 그들의 기존 지식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비교적 용이했을 것이다. 그에 비해 전술한 탕차이창이 처음으로 ‘바빌론 기원설’을 접

했을 때의 반응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그들에게 이 설은 기이한 학설이었다. 그럼 라쿠페리의 ‘서래설’은 어떠한 경위로 청 말기의 중국에 들어갔으며,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이하에서는 청 말기(20세기 첫 10년간)의 ‘서래설’ 수용 과정을 ① 번역과 소개, ② 해석과 재해석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번역·소개

라쿠페리의 ‘서래설’이 중국에 들어온 계기는 전술한 시라카와 지로·고쿠부 다네노리의 『支那文明史』가 1903년에 중국어로 번역된 것이다.⁷⁶⁾ 『支那文明史』는 출판 직후 도쿄와 상하이의 중국 지식인들 사이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1903년 봄 도쿄에서 발행된 『遊學譯編』에는 『支那文明史』가 “이미 절반 번역되었기 때문에 동지는 중복해서 번역하지 않도록”이라는 게시가 실려 있다.⁷⁷⁾ 그러나 그로부터 3주 전에 上海會文學社는 『支那文明史』의 중국어역을 곧 『帝國文明史』라는 제목으로 출판할 것을 알렸다.⁷⁸⁾ 이 『帝國文明史』는 『支那文明史』의 최초의 중국어역으로, 내용은 불과 20쪽이고 라쿠페리의 ‘서래설’에 관한 부분(제3장)은 겨우 3쪽에 지나지 않는다. 제3장의 말미에 ‘속출(續出)’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이 『帝國文明史』는 어떤 사정에 의해 번역이 미완인 채 서둘러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용상 번역이라기보다는 원저의 3장의 개략을 번역하고 역자 자신의 의견도 첨가한 이 시기의 출판물에 흔했던 ‘편역’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03년에 東新譯社(도쿄)와 競化書局(상하이)에서 『支那文明史』의 두 개의 중국어 번역본 『中國文明發達史』와 『支那文明史』가 간행

72) 岡本監輔의 『萬國史記』에 대해서는 狹間直樹, 2002, 『初期アジア主義についての史的考察(7)』第六章 善隣協會について—岡本監輔のばあい(『東亞』, 2002.2)를 참조.

73) 唐才常, 1990, 「亞細亞種類考」(1897.9), 陳善偉, 『唐才常年譜長編』上册, 中文大學出版社, 354쪽.

74) 예를 들면 市村瓚次郎 著, 光緒年間, 『支那史要』, 陳毅 譯, 廣智書局, 2쪽; 小川銀次郎 著, 1902, 『東洋史要』, 屠長春 譯, 商務印書館, 2쪽.

75) 鳥居龍藏 編輯, 1903(초판), 1904(재판), 『人種誌』, 林楷青 譯, 閩學會, 2쪽.

76) 李孝遷, 2007, 『西方史學在中國的傳播』, 華東師範大學出版會, 76쪽.

77) 『遊學譯編』第四冊(1903), 뒤 6쪽.

78) 白河次郎·國府種德 著, 1903, 『帝國文明史』(『支那文明史』), 東華譯書社 編譯, 上海: 會文學社.

되었다. 東新譯社는 일본 유학생 중 호남성(湖南省) 출신 학생을 중심으로 결성된 출판사로 주로 역사 교과서의 번역 출판으로 알려졌다. 『중국명명발달사』의 출판일은 황제의 기년에 따라 '기년 4455년 4월 24일'로 쓰여 있다. 본서의 대부분은 원서의 내용을 직역한 것인데 의역한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 가운데 '서래설'에 관한 제3장의 내용은 약 30쪽(4~33쪽)이다.⁷⁹⁾ 당시 東新譯社의 출판물은 상하이에 있는 『蘇報社』를 통해 중국 각지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책은 일본에서 출판되었지만 출판 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상하이 등 도시에 유통된 것으로 추측된다. 競化書局的 『支那文明史』의 출판은 『中國文明發達史』보다 10여 일 늦었다. 이 번역본은 총 247쪽 분량이고, 그중 라쿠페리의 '서래설'에 관련된 부분은 제3장(20~52쪽)이다.⁸⁰⁾ 『中國文明發達史』와 마찬가지로 이 책의 번역도 그다지 유창하지는 않지만 원저를 거의 그대로 충실하게 번역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라쿠페리의 '서래설'이 중국에서 각광을 받게 된 계기는 『支那文明史』의 전술한 두 개의 번역본이 아니라 그보다 4개월여 뒤에 『新民叢報』에 연재된 장즈유의 논문 「中國人種考」였다. 장즈유(1865~1929)는 자가관운(觀雲)이고 절강성 제기(浙江省 諸暨) 출신이었다. 1902년 일본에 오기 전에 상하이에서 『選報』의 편집을 담당했는데, 이 잡지에서는 량치차오(梁啟超)의 『新史學』을 전재(轉載)한 적이 있으며,⁸¹⁾ 일본에 온 뒤 『新民叢報』나 『浙江潮』의 편집을 맡았다. 장즈유는 『海上觀雲集初編』(1902), 『居東集』(1903)을 출판했는데 가장 알려진 것은 1903~1904년에 『신민총보』에 연재한 「中國人種考」였다.⁸²⁾ 이 연재 원고는 1906년에 동명으로 출판되

었다.⁸³⁾ 그리고 오늘날 논자들이 빈번히 언급하는 1929년판 『중국인종고』는 사실 장즈유 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고, 여타 의견이 다른 글과 함께 수록된 책이다.⁸⁴⁾

「中國人種考」에서 소개된 라쿠페리의 '서래설'의 내용은 주로 다음 세 가지이다.⁸⁵⁾ 첫째, 한족의 이동에 관한 문제이다. 나크훈테(즉 근세의 Nai Hwangti)는 티그리스강에서 전공을 세우고 기원전 2282년에 바크족을 이끌고 동으로 이동, 투르키스탄, 카슈가르를 경유하여 타림강을 따라 곤륜산맥(崑崙山脈)의 동쪽에 도착하였다. 둘째, '곤륜(崑崙, Kuenln)'이란 '꽃의 나라(Flower Land)', 즉 중국으로 이 이름을 명명한 것은 자손에게 그 비옥한 토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셋째, 바빌론과 중국의 상고 문명의 유사점을 열거하고 있다. 장즈유는 시라카와 지로·고쿠부 다네노리의 『支那文明史』나 두 개의 중국어 번역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中國人種考」는 틀림없이 일본어 본을 번역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번역 소개하는 과정에서 분명 『中國文明發達史』를 참고했다.⁸⁶⁾

흥미롭게도 청 말기에서 현재까지 장즈유는 중국에서 최초로 '서래설'을 주창한 인물로 여겨졌으나 실은 장즈유 자신은 반드시 '서래설'의 내용을 전

79) 白河次郎·國府種德 著, 1903, 『中國文明發達史』, 黑風氏 譯, 東新譯社.

80) 白河次郎·國府種德 著, 1903, 『支那文明』, 上海: 競化書局 編譯, 東新譯社.

81) 『選報』 12期(1902).

82) 이것은 후에 두 곳의 출판사에서 판행본으로 간행된 ① 蔣智由 著, 1906, 『中國人種考』, 新民社. ② 蔣智由 著, 1929, 『中國人種考』, 華通書局. '서래설'에 관해서 종종 언급된 것은 후자인데 그 가운데는 장즈유 이외의 사람이 쓴 '서래설' 관련 논문도 수록되어 있다.

83) 蔣智由 著, 1906, 『中國人種考』, 橫濱: 新民社.

84) 蔣智由 著, 1929, 『中國人種考』, 上海: 華通書局, 1929년에 수록된 抱恩齋雜의 『中國人種考原』은 본래 京師中華書局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이고 출판 시기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滿洲本族은 원래 肅慎에서 나왔으니 황제의 손자이자 소호의 아들인 般에게 분봉된 나라이다"라는 말로부터 이것이 혁명파의 배만 주장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85) 觀雲, 1903, 「中國人種考」(二), 『新民叢報』 37號, 9~19쪽.

86) 東新譯社本의 Ba와 관련된 번역어는 巴克諦, 巴克多納, 巴克坦, 巴克雅, 巴克打, 巴克斯坦(巴克之陸), 巴北(克)米納吉(巴克之國) 등이다. 『中國文明發達史』, 32~33쪽 참조. 競化書局的 번역어 巴古提, 巴古拉, 巴古頓, 巴古得雅里, 巴科達鐸, 巴基斯頓(巴古之陸), 巴古攸斯 挪架(巴古之國) 등은 『支那文明史』, 51쪽 참조. 觀雲, 1903, 「中國人種考」의 번역어 巴克諦, 巴克脫雷, 巴克坦, 巴克雅, 巴克大, 巴克斯坦(巴克之陸), 巴克美乃齊(巴克之國) 등은 위의 책, 10쪽 참조.

면적으로 신뢰한 것은 아니었다.⁸⁷⁾ 그는 「中國人種考」에서 라쿠페리의 ‘서래설’을 소개한 후, “이상으로 인용은 했으나 그 진위에 대해서는 지금껏 단언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⁸⁸⁾ 이듬해인 1904년, 장즈유는 타오청장(陶成章, 1878~1912)의 『中國民族權力消長史』를 위해 쓴 서문에서 “우리 종족의 유래에 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다. 나는 예전에 다양한 학설을 망라하여 「中國人種考」를 저술했지만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다. 단지 (한족의 시조를) 황제로 소급하는 것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⁸⁹⁾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라쿠페리의 ‘서래설’에 대한 장즈유의 유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장즈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中國人種考」는 한번 세상에 알려지자 홀로 걷기 시작하였다. 「中國人種考」가 청말 민국기의 지식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장즈유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2) 해석 · 재해석

「中國人種考」의 제2부가 『新民叢報』에 게재된 직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 『新民叢報』의 압도적인 영향력이나 청 말의 인종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에서 보자면 「中國人種考」가 주목받은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中國人種考」에서 ‘서래설’의 근거로서 『山海經』이나 『穆天子傳』 등 중국 문헌의 기록이 인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支那文明史』의 중국어 역과 장즈유의 「中國人種考」가 청말 지식인들의 ‘서래설’ 수용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다시 말하자면 그의 ‘서래설’에 관한 지식은 어디에서 얻은 것일까? 이 텍스트들에 나타난 인명이나 서명(書名), 지명의 비교가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다. <표 1>은 이 3가지 텍스트

87) 그에 비해 량치차오는 서래설을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中國之新民, 1904, 「歷史上中國民族之觀察」, 『新民叢報』 第3年 17號, 2쪽.

88) 觀雲, 1903, 앞의 글, 『新民叢報』 17號, 14~15쪽.

89) 蔣智由, 1986, 「中國民族權力消長史序」, 湯志鈞 編, 『陶成章集』, 中華書局, 447쪽.

에 포함된 라쿠페리의 이름이나 저서 및 황제 등의 역사 인물, 지명의 주요한 중국어 표기이다.

<표 1> ‘서래설’ 관련어 번역 비교 일람

	『帝國文明史』	『中國文明發達史』	『支那文明史』	『中國人種考』
Lacouperie	科倍黎	克比利	苦柏黎	拉克伯里
Western Origin of the Early Chinese Civilisation	『支那西方古代文明之根元』	『支那太古文明本原西方』	『支那古代文明在西方之根元』	『支那太古文明西元論』
Chaldea	庫爾齊亞	加爾齊亞	加爾齊亞	亞爾多/迦勒底
Hitties	希支的斯	悉底斯	希(喜)底德斯	
Nakhunte	黃帝/那科芬代	黃帝/內克芳帝	黃帝/奈科芬德	黃帝/奈亨台
Elamite		黃帝/貳納密	黃帝/埃拉孟德	黃帝/愛雷米特
Bak	百姓/巴科	百姓/巴克	百姓/巴古	百姓/巴克
Sargon	神農/撒良	神農/薩公	神農/撒兒瓦	神農/莎公
Dunkit	倉擻/士幾		倉擻/純克德	倉擻/但克

개략하면 ‘서래설’에 관심을 보인 청 말기의 많은 지식인들은 『國粹學報』의 편집이나 배만 혁명(排滿革命) 활동에 관여한 사람들이었다.

가장 먼저 적극적 반응을 보인 사람은 류스페이(劉師培, 1884~1919)였다. 1903년 류스페이는 개봉(開封) 회시에서 낙방한 후 고향인 양주(揚州)로 돌아가는 길에 상해에서 장빙린(章炳麟) 등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류스페이는 배만 혁명에 찬성하는 쪽으로 전향하여 차이위안페이(蔡元培), 장즈유 등이 발기한 중국교육회에 가입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황제기년설」이라는 제목의 글을 저술하고 「황제 강생 4614년 윤5월 17일」이라고 표기했으며 ‘무외(無畏)’라는 필명으로 『國民日日報』 1집과 그보다 약간 나중에 간행된 『黃帝魂』에 게재하였다.⁹⁰⁾ 11월에 류스페이는 『中國民族志』라는 제목의 저

90) 無畏, 1903, 「黃帝紀年說」(附大事表), 『國民日日報彙編』(中華民國史料叢編) 一集, 9~13

작에서 구와바라 지쓰조의 『東洋史要』(『中等東洋史』의 중국어 번역)를 인용하여 “이 민족(한족-인용자)은 상고 때 서방으로부터 내지로 이주해 황하 연안에서 생활하고 점차 서방으로 퍼져나갔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구와바라의 학설에 따르면 한족도 지나 인종의 하나이다. 나는 한족의 유래를 소급하고, 중국의 유학자는 모두 ‘盤古’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고, 서양의 서적은 ‘巴枯族’으로 기록하고 있다. ‘巴枯’는 ‘盤古’의 발음을 변화시킨 것이다. 확실히 세계 인종의 개화는 모두 파미르고원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한족도 대체로 서방에서 이입(移入)된 것이다. (중략) 또한 중국 문명이 迦耳底亞(칼데아-인용자)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이야기는 황당무계하지만 이치에 맞는다.⁹¹⁾

이 단락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류스페이는 1899년 東文學社에서 출판한 구와바라 지쓰조의 『東洋史要』 번역본을 읽은 적이 있다.⁹²⁾ 둘째, ‘巴枯’라는 단어를 보면 그는 競化書局版의 『支那文明史』도 읽은 것으로 추측된다. 단, 류스페이는 구와바라가 라쿠페리의 ‘서래설’에 비판적이었던 것을 모른 채, 두 책에서 얻은 중국 인종 기원에 관한 지식을 중국

쪽 많은 사람이 황제의 자손에 대한 글을 썼다. 「黃帝紀年說」(附大事表), 『黃帝魂』(中華民國史料叢編), 1~4쪽; 章士釗, 1961, 「疏“黃帝魂”」 辛亥革命回憶(一), 中華書局, 219쪽. 이 논문의 날짜는 ‘黃帝誕生四千六百年 閏五月十七日’로 되어 있다. 孔子紀年과 黃帝紀年에 관해서는 이하의 논문을 참조. 村田雄二郎, 1992, 「康有爲與孔子紀年」, 『學人』二輯, 江蘇文芸出版社; 島下美喜, 1998, 「清末留日學生と“黃帝紀元”」, 『千里山文學論集』 60號; 島下美喜, 2003, 「樽本照雜誌の黃帝紀年— [日歷新歷問], 『清末小説から』 71號; 焦潤明·王建偉, 2004, 「晚清“紀年”論爭之文化解讀」, 『遼寧大學學報』 6期.

91) 劉師培, 1997, 「中國民族志」(1903.11), 『劉申叔遺書』(全二冊),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602~603쪽.

92) 桑原隲藏 著(1899), 『東洋史要』, 樊炳清 譯, 東文學社.

고대 문헌의 기록과 관련지어 한족이 파미르고원에서 기원한다고 기술하고, 또한 서아시아의 *Bak*(巴枯)를 중국 신화 가운데 천지개벽의 신인 ‘盤古’로 보고 있다.

그리고 1904년 1월, 류스페이는 『攘書』의 「華夏篇」에서 “한족은 처음에 서토(西土)에서 발생하였고 드높고 험준한 곤륜산은 실로 ‘巴科民族’의 발상지였다. (중략) 한토(漢土)의 민(民)은 과거를 논하면서 자신들의 선조를 잇고 盤古 창세설을 만들어 한족의 근본을 찾으려 했다”고 기술하여⁹³⁾ 전술한 『中國民族志』에서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攘書』에서 한족은 ‘巴枯族’이 아니라 ‘巴科族’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帝國文明史』에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1904년 7월, 류스페이는 『警鐘日報』에 「思祖國篇」이라는 제목의 글을 연재하고 곤륜산 이서(以西)의 ‘加爾疊亞’는 ‘華夏篇’에 언급된 조국으로 ‘巴枯’는, 즉 ‘盤古’였다는 것을 거듭 주장하고, 중국 고대 문헌에 기록된 ‘서왕모방(西王母邦)’은 서양인이 말하는 ‘亞西利亞國(앗시리아)’였다고 단언하고 있다.⁹⁴⁾ 1905년 5월, 류스페이는 『國粹學報』 4호에 게재된 논문 「古政原始論·國土原始論第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신주(神州)의 민족은 칼데아에서 발생하였다. 『史記·封禪書』에 따르면 “泰帝가 발흥하고 신정(神鼎)이 통일된다.” 『淮南子』에 따르면 “泰古의 두 사람의 황제는 도를 얻었다.” ‘泰帝’와 ‘泰古’는 ‘迦克底’의 전음(轉音)이다. 후에 곤륜산을 넘어 대하(大夏)를 지나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여 신주의 옥토에 정착하였다. 백인은 이것을 ‘巴枯遜族’이라고 부른다. ‘巴枯遜’이란 ‘盤古’의 전음, 즉 ‘百姓’의 전음이다.⁹⁵⁾

93) 劉師培, 1997, 『攘書·華夏編』(1904.1), 앞의 책, 631쪽.

94) 劉師培, 1904, 「思祖國篇」, 『警鐘日報』 7월 15~20일자. 원문에는 서명이 없다.

95) 劉光漢, 1905, 「古政原始論·國土原始論第一」, 『國粹學報』 乙巳 第1年, 2冊 4期, 1쪽.

여기서는 *Bak*라는 단어는 다시 최초의 표기인 ‘巴枯’로 돌아왔다. 그러나 ‘巴枯族’의 발상지인 ‘迦克底’는 ‘迦勒底’라는 장즈유의 번역어에서 전사(轉寫)된 것이다. 그것은 ‘迦克底’의 발음이 중국 고대 서적에 기재되어 있는 ‘泰帝’, ‘泰古’의 발음에 보다 가까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중국 문명 ‘서래설’에 대한 류스페이의 해석은 이 시기 그가 편집한 『中國歷史教科書』(1905~1906)에도 나타나 있다.⁹⁶⁾ 예를 들면 제1과에 있는 “중토(中土)에 정주하였다”는 문구에 류스페이는 “일본의 시라카와의 지나문명론설에 따른다”는 주석을 달고 있다. 이것은 류스페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서래설’에 관한 지식이 『支那文明史』에서 유래한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족이 처음으로 중국에 이주해 왔을 때의 군주”라는 교과서 문구에 “유럽인 拉克伯里的 『支那太古文明西元論』에 따르면 巴克는 즉 백성이고 황제는 巴克族의 수령이다. 神農은 바빌론의 莎公이고 倉頡은 但克이다”라는 설명문이 첨부되어 있다. ‘拉克伯里’, ‘巴克’, ‘莎公’, ‘但克’ 및 『支那太古文明西元論』이라는 표기가 모두 장즈유의 「中國人種考」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류스페이는 장즈유의 「中國人種考」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다음 두 가지 점이 명확하다. 첫째, ‘서래설’에 관한 류스페이의 지식은 競化書局的 『支那文明史』와 장즈유의 「中國人種考」에서 유래한다. 둘째, 류스페이는 라쿠페리의 비교언어학의 방법과 같이 인명이나 지명의 음운 비교를 통해 바빌론의 Bak/ ‘巴枯’를 중국 고대 신화에서 천지개벽의 신인 ‘盤古’와, ‘迦可底’를 ‘泰帝’나 ‘泰古’와 각각 비교하여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류스페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장빙린도 라쿠페리의 ‘서래설’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⁹⁷⁾ 장빙린은 1904년에 수정한 『楮書』의 「序種姓」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하일족(夏一族)의 기원에 관해서는 科派利가 석각(石刻)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加爾特亞(Chaldea)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동으로 총령(葱嶺)을 넘어 구려(九黎), 삼묘(三苗)와 싸우고, 대호(大鱗)(즉 복희-인용자)에서 우(禹)에 이르러 드디어 뜻을 실현하였다. 이것을 육예(六芸)나 전기(傳記)의 기재와 비추어 보면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科派利’는 라쿠페리를 가리킨다. ‘科派利’라는 번역어는 『帝國文明史』의 ‘科倍黎’과 『中國文明發達史』의 ‘克比利’라는 두 개의 번역어를 합성한 것으로 보인다. 후에 보이는 장빙린의 ‘加爾特亞’와 ‘薩爾宮’ 등의 번역어에서 그의 ‘서래설’에 관한 지식은 주로 『中國文明發達史』에서 얻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류스페이와 마찬가지로 장빙린도 중국어 문헌의 발음에서 라쿠페리의 ‘서래설’에 끌려대고 있다. 예를 들면 加爾特亞에 대해서 장빙린은 “宗國의 加爾特亞는 즉 고대의 葛天(葛天)으로 소아시아의 남쪽에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갈천(葛天)은 실은 나라의 이름으로 역대부터 계승되고 있다. 加爾特亞에서 爾와 亞는 모두 여음(余音)으로 중국어에서는 이것을 생략하고 있다. 고로 가특(加特), 갈천(葛天)이라고 한다.” 또한 그는 류스페이와 같이 음운 비교의 방법을 이용하여 ‘薩爾宮’과 ‘神農’이 “고대의 발음에 비추어 보면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곤륜에 대해 “곤륜이란 華(속자는 花이다) 土이고, (바크족은-인용자) 華라는 나라를 세웠다.” 이것은 즉 중국 고대 문헌에 기록된 “천황이 주주(柱州)의 곤륜에 도착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⁹⁸⁾

이와 같이 류스페이와 장빙린은 예기치 않게 중국 고대 문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구사하여 다른 언어를 비교하고 라쿠페리의 ‘서래설’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그들의 논증법은 라쿠페리의 ‘언어 과학’—비교언어학의 방법과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었고, 그들의 결론도 라쿠페리의 ‘서래설’을 추종하

96) 劉師培, 1997, 「中國歷史教科書」, 『劉申叔遺書』, 2178쪽.

97) 류스페이는 「思祖國篇」에서 ‘서래설’에 관한 장빙린의 주장을 언급하고 있다. 『警鐘日報』 1904年 7月 15日차.

98) 章炳麟, 1984, 『章太炎全集』(三), 上海: 人民出版社, 170쪽, 173쪽.

는 것이었다.⁹⁹⁾ 그러나 그들이 중국 고대의 문헌 기록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기껏 황제/한족의 기원이 곤륜산에 있다는 것으로, 황제가 바빌론에서 왔다는 라쿠페리의 가설을 뒷받침할 수는 없다. 곤륜산에서 바빌론까지의 넓은 지리적 거리는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그 뒤의 '서래설' 지지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타오청장은 '서래설'에 대해서는 "감히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이 주장은 참신하고도 투철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일률적으로 황당 무계한 이야기로 여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¹⁰⁰⁾ 타오청장은 장즈유의 논법에 따라 한족의 이동에 관한 『山海經』과 『穆天子傳』의 기록은 라쿠페리 '서래설'의 근거라고 생각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¹⁰¹⁾

라쿠페리가 말하는 나크훈테가 巴克族을 이끌고 동으로 이동하여 투르키스탄을 경유하여 카슈가르에, 그리고 타림강을 따라 곤륜산맥의 동쪽에 도착하여 중원에 정주하였다. 이 학설의 진위에 대해서는 아직 알 도리가 없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의 선조가 발자취를 곤륜산맥에 남긴 이상 중앙아시아에서 동아시아로 이주해 온 것은 확고한 사실이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서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로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다시 동아시아로 이주해 온 것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오청장의 '서래설'은 실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는 것이다. 하나는 바빌론에서 곤륜산으로의 이동, 또 다른 하나는 곤륜산에서 중원으로의 이동 부분이다. 전자가 일본을 경유해서 전파된 라쿠

페리의 '서래설'인 것에 비해 후자는 중국 고대의 문헌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1905년 상하이에서 창간된 『國粹學報』의 주요 회원이었던 황지에(黃節, 1873~1935)는 '서래설'에 의문을 제기한 한 사람이었다. 그가 집필한 『國粹學報』의 발간사에서 '巴克族'이라는 표현은 여러 번 사용되고 있다. 그는 「黃史」에서 '克比利'—라쿠페리, 이 번역어에서 황지가 東新譯社의 번역본 『中國文明發達史』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의 '서래설'에 관해 상세히 논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최근의 학자에 따르면 加爾特亞는 갈천(葛天)이고 巴克은 盤古의 전음이다. 유럽인은 우리 민족을 巴克 民族으로 부른다. 巴克은 즉 盤古 民族이다."¹⁰²⁾ '加爾特亞'와 '갈천(葛天)'은 장빙린의 주장이고, 巴克이 盤古라는 부분은 류스페이가 최초로 제기한 것이다. 양자의 주장에 대해 황지에는 "지명이나 인명은 여러 번 번역되면 번역어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무리하게 발음을 비교하면 신빙성을 잃게 된다"고 지적하고 장빙린과 류스페이의 방법론적인 문제점을 암암리에 비판한 뒤 다음과 같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즉 이해(里海)의 남서에 '巴克'이라는 지명이 있고 곤륜산의 또 하나의 이름은 '巴爾布哈'으로, '巴克'과는 발음이 매우 가깝다. 파미르의 토번(土番)들은 자신들의 수령을 '伯克'으로 부른다. 따라서 '巴克族'은 즉 '崑崙族'이다.¹⁰³⁾ 요컨대 황지에게 있어 '巴克族'은 바빌론에서 온 것이 아니라 곤륜산에서 온 것으로, '서방'은 라쿠페리가 말하는 바빌론이 아니라 파미르고원의 곤륜산이었다. 곤륜산에서 중원으로의 이동이라는 황지에의 주장이 전절에서 언급한 구와바라 지쓰조의 「중앙아시아기원설」과 같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대해서는 황지가 구와바라 지쓰조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묻기보다 두 사람 모두 황제나 서왕모 등에 관한 중국 고대의 문헌 기록에서 논의의 근거를 얻었다고 해야 할 것이

99) 「小學」과 「比較言語學」의 같고 다름에 대해서 장빙린은 "각각 범위는 다르지만 성질은 약간 유사하다"고 지적하였다. 章炳麟, 1977, 「東京留學生 會 說辭」(1906.7.15), 湯志鈞 編, 『章太炎政論選集』 上冊, 中華書局, 276~277쪽.

100) 陶成章, 1904, 「中國民族權力消長史」, 앞의 湯志鈞 編, 『陶成章集』, 231쪽.

101) 陶成章, 1904, 앞의 책, 258쪽.

102) 黃節, 1905, 「黃史」 卷一, 『國粹學報』 乙巳, 第1年, 三冊 1期, 5~6쪽.

103) 黃節, 1905, 앞의 글, 412~413쪽.

다. 그리고 청말 지식인들의 '서래설' 수용의 맥락에서 보면 황지에의 주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중국 고대 문헌에 근거하여 라쿠페리의 '서래설'을 수정한 최초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903~1905년에 걸쳐 '서래설'을 둘러싼 청말 지식인들의 논의는 류스페이, 장빙린에 의한 직접적인 견강부회에서 타오청장의 이중 서래설을 거쳐 황지에의 곤륜산 서래설로 변화했다. 그 이후는 '서래설'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점차로 증가했다.

1905년 2월, 배만 혁명과 황제기년의 사용을 강력히 주장한 송자오런(宋教仁)은 그의 논문 「漢族侵略史·叙例」에서 “태고의 한족은 서남아시아에서 동으로 이주해 왔다”고 서술하고 있다.¹⁰⁴⁾ 그러나 이듬해 12월 29일자 일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29일 맑음. 11시에 民報社에서 돌아와 『中國人種考』를 읽었다. 이것은 서기(장즈유의 고향 절강성 서기현을 가리킴)의 장관운(觀雲은 장즈유의 字)이 쓴 책이다. 많은 학설을 모아놓았지만 문장은 너무나도 산만하다. 한민족이 서에서 왔다는 주장 중에 황제가 迦底(칼데아)帝의 廓特奈亨亭(쿠쯔르 나크훈테)인가 하는 문제, 한족이 丟那尼安(투라니아)족인가 하는 문제 및 神農이 塞米底(슈메르)족 吾爾(우르)왕조의 沙公(사르곤)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해석은 없다.¹⁰⁵⁾

여기서 언급된 「中國人種考」는 1906년 新民社에서 출판한 단행본이다. 송자오런은 불과 일 년여 만에 '서래설'에 이별을 고하였다. 실은 장빙린도 거의 같은 시기에 '서래설'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다. 1907년 장빙린은 『民報』에 게재된 일련의 논문에서 '서래설'을 정면으로 비판하게 되었다.¹⁰⁶⁾ 『民

報』 15호의 「中華民國解」에서 장빙린은 “사람들은 곤륜을 華國이라고 하지 만 이것은 견강부회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의 고대 제왕이 곤륜을 도읍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고 '서래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기원설'도 부정하고 있다.¹⁰⁷⁾ 단, '중앙아시아 기원설'에 대한 부정은 반드시 일관된 것은 아니었고 이듬해 그는 「排滿平議」에서 “한족이 타미르에서 온 것은 역사서에 근거는 없지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서술하고 있다.¹⁰⁸⁾ 그리고 민국 성립 후, 장빙린은 『楬書』를 재수정하면서 한족이 “加爾特亞(칼데아)에서 동으로 총령을 넘어 구려, 삼묘와 싸워 대호에서 우에 이르러 드디어 그 뜻을 실현하였다”는 문장에 이은 “육예(六芸), 전기(傳記)에 비추어 보면 거의 일치한다”는 문구를 “육예(六芸), 전기(傳記)에 비추어 보면 일치하지 않는다”로 고쳐 쓰고 '서래설'에 대한 지금까지의 자신의 주장을 사실상 부정하였다.¹⁰⁹⁾

그렇다면 왜 송자오런, 장빙린 등이 '서래설'에 관한 지금까지의 주장을 부정한 것일까? 나의 의견으로는 다음 두 가지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한족 정체성의 확립과 그 외래성의 모순이다. 장빙린에 관해서 말하자면 진화론의 맥락에서는 한족의 외래성을 강조하는 것은 분명 한족의 역사적 강인함을 주장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원주민이 아닌 정복 민족인 한족이 같은 외래의 만주족을 중원 지역에서 몰아낸다는 '배만'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것이다. 그는 「定復讐之是非」(1907)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하(諸夏)의 족은 파미르고원에서 와서 묘족(苗族) 고유(의 토지)를 빼앗았다. 이에 대해 과연 묘족은 그들을 배척하려 하지 않았을까.”¹¹⁰⁾ 한족 정체성의 확립과 그 외래성의 모순을 깨달은 장빙린은 결국 '서래설'을 포기할 수밖에

107) 장빙린이 곧 “그러나 神靈之 書는 서쪽에서 왔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서쪽'의 의미는 애매하다. 太炎, 1907, 「中華民國解」, 『民報』 15號.

108) 章炳麟, 1908, 「排滿平議」, 『民報』 21號.

109) 章炳麟, 1984, 『章太炎全集』(三), 360쪽.

110) 太炎, 1907, 「定復讐之是非」, 『民報』 16號.

104) 『二十世紀之支羅』 1期(1905.6); 陳旭麓主 編, 1981, 『宋教仁集』 上册, 中華書局, 3쪽.

105) 『宋教仁日記』(1906.12.29); 陳旭麓主 編, 1981, 앞의 책, 702쪽.

106) 小林武, 2006, 『章炳麟と明治思潮—もう一つの近代』, 東京: 研文出版, 69쪽.

없었던 것이다. 둘째, 학문과 정치의 문제이다. 한족은 어디에서 왔는가. 한족 정체성의 확립과 그 외래성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장빙린은 “만주족이 영고담(寧古)에서 온 것에 대해서는 역사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한족이 파미르고원에서 온 것에 대해서는 단지 총서(塚書)(『竹書紀年』 등을 가리킨다)의 기록이나 신화를 여기 저기 고증하고 끌어다 댈 것에 지나지 않아 명확한 역사적 증거는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¹¹¹⁾ 여기서의 일견 장빙린은 학술적인 관점에서 ‘서래설’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가 ‘서래설’을 포기한 배경에는 ‘서래설’을 수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1910년 장빙린은 『教育今語雜誌』에 기고해 “(어느 프랑스인(라쿠페리)은 중국 인종은 원래 바빌론에서 왔고 중국의 토지는 원래 전부 묘인(苗人)의 것으로 후에 그들은 한인에게 쫓겨났다고 한다. 이전에는 나도 이것을 믿고 있었지만 최근에 나는 이에 대해 상세히 고증하고 실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주장하며,¹¹²⁾ 중국의 학문은 외국인의 학문을 추종해서는 안 되며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은 각각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학문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당연히 ‘서래설’에 대한 청말 지식인들의 반응이 한결같은 것은 아니다. 그 중에는 쑹자오런, 장빙린과 같이 찬성에서 반대로 태도를 바꾼 사람도 있고, 일관되게 ‘서래설’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 샤쟁여우(夏曾佑)는 그중 한 사람이다. 그는 일관되게 ‘서래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한 사람이었다. 샤쟁여우는 1904년 商務印書館에서 간행한 역사 교과서에서 “유럽인의 학설 또한 한쪽에 치우친 것이다.” “요즘 우리 민족이 바빌론에서 이주해 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중략) 최근에 프랑스, 독일, 미국 등 각국 사람들이 바빌론 유적을 발견한 것을 보면 고대 바빌론의 문화는 유럽 문화에 가깝고,

우리 민족의 문화와는 달라서 필시 동종(同種)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며,¹¹³⁾ 중국 문화와 고대 바빌론 문화의 이질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래설’이 청 말기에 중국에 전래된 후 그에 대한 해석과 재해석을 시도한 사람들은 1905~1907년 사이에 거의 ‘서래설’을 포기했다. 한편 ‘중양아시아 기원설’이 라쿠페리의 ‘서래설’을 대체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서래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구와바라 지쓰조의 『中等東洋史』의 또 한 사람의 번역자 진웨이(金爲)는 원문의 “한족은 필시 극히 유원한 시대에 서방으로부터 점차 지나의 내지로 이주해 왔던 것이다”¹¹⁴⁾라는 부분에 라쿠페리의 ‘서래설’의 내용을 첨가하고 있다. 1914년에 출판된 제7판에는 “어느 독일인은 『東亞歷史』에서 지도를 제시하여 우리나라 상고에 대해 황색인종은 서북의 바빌론에서 왔다고 서술하고 있다. (중략) 또한 『支那太古文明西元論』에서는 한족이 서에서 왔을 때 그중 일족이 본족에서 분리됐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이 아직 남아 있다.¹¹⁵⁾

그런데 ‘서래설’의 지지자에게 라쿠페리의 황제 이야기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왜 황제는 단일한 생활을 버리고 바크족을 이끌고 멀고 먼 바빌론에서 중국으로 이주해야만 했는가? 이에 대해 ‘서래설’ 지지자의 한 사람인 멩첸(丁謙)은 그의 저서 『穆天子傳地理考證』에서 라쿠페리의 ‘서래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있다.

(중략 ‘서래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나크훈테(황제)가 백성을 이끌고 중국으로 이주했다는 것만 알고, 그의 나라에서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고 성을 공략해 그 군주를 살해했기 때문에 (황제)가 중국에 귀복(歸服)한 것을 몰랐다. (중략)

111) 太炎, 1907, 앞의 글 참조.

112) 章炳麟, 1977, 「論教育的根本要從自國自心發出來」(1910), 湯志鈞 編, 『章太炎政論選集』上册, 514쪽.

113) 夏曾佑, 1904(初版), 『最新中學中國歷史教科書』, 上海: 商務印書館; 夏曾佑, 2000, 『中國古代史』,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10쪽.

114) 桑原隲藏, 1968, 『中等東洋史』, 『桑原隲藏著作集』四卷, 27쪽.

115) 金爲譯, 1914, 『東洋史要』, 商務印書館(1908年 初版), 14~15쪽.

그렇지 않다면 나크혼테가 올바르고 국가가 융성했는데 왜 안락한 고향을 버리고 만리나 떨어진 곳으로 정주할 곳을 찾아야만 했는가.¹¹⁶⁾

여기서 핑첸은 ‘황제는 바빌론에서 왔다’는 이야기의 신빙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빌론에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황제는 전란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백성을 이끌고 중국에 귀복(歸服)한 것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5. 맺음말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근대지(知)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각도에서 라쿠페리의 ‘서래설’의 내용 및 동아시아에 전파되는 과정을 개관하였다. ‘서래설’의 출현은 라쿠페리 개인의 취미나 개성의 산물이었지만 유럽의 동양학의 일환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18세기 이후 유럽의 동양 학계에서는 중국 문명의 기원이 이집트, 히브리, 바빌론에 있다는 학설이 연이어 등장했다. 그 배경에는 타자에 관한 단편적인 지식을 기존의 틀에 끼워 넣음으로써 타자에 대한 이미지를 상상하고 형성한다는 공통된 인식의 유형이 존재한다. 이것은 즉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의 오리엔탈리즘이다.¹¹⁷⁾ 그러나 라쿠페리의 ‘서래설’은 단순히 유럽의 오리엔탈리즘의 산물로 보는 안 된다. ‘서래설’에 관한 라쿠페리의 수많은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르다’는 논증에는 반드시 중국 문명이나 한족에 대한 편견이 섞여 있다고 할 수 없다. 라쿠페리는 레그, 솔레젤 등 당시의 유명한 동양 학자의 ‘과학적’ 중국 연구에 비해 자신의 연구는 보다 ‘과학적’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

에게 중국어나 칼데아어를 비교하는 방법은 ‘언어 과학’이고 문헌과 출토품을 대조하여 양자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방법은 ‘역사 과학’이었다. 라쿠페리는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경험주의의 학문적 조류 가운데 크게 주목을 받은 앗시리아학 연구에서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 그러나 라쿠페리의 연구는 방법론에 대한 무비판과 자신의 주장에 대한 집요한 고집으로 학문이라기보다 문학 창작이라는 인상을 독자에게 안겨 준다. 따라서 당시 유럽의 중국 연구에 있어 중국 문명이 서방에 기원을 둔다는 학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쿠페리의 ‘서래설’은 학문으로서의 자리를 획득할 수 없었다.

한편, 메이지 말기 일본에서는 라쿠페리의 ‘서래설’은 당시의 중국 연구자 사이에서 논쟁을 일으킬 정도로 크게 주목을 받았다. 역사학자 구와바라 지쓰조와 고고학자 미야케 요네키치의 의견 대립, 역사학자 시라토리 구라키치와 하야시 다이스케의 격론은 성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일본의 동양학이 유럽의 동양학을 만났을 때 조우하는 하나의 문제를 조명하고 있다. 즉 유럽의 동양학을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가, 아니면 한학의 전통에 따라 중국어 문헌의 독해를 연구의 중심으로 설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서래설’을 비판할 때 구와바라는 만약 비교적 정돈된 한적 문헌(漢籍 文獻)의 역사 서술이 의심스러운 것이라면 바빌론에서 출토된 단편적인 비문은 얼마나 진실성을 지니는지를 묻고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구와바라 지쓰조는 중국 문명이 서에서 왔다는 학설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비판한 것은 라쿠페리의 바빌론설로, 중국 문명의 중앙아시아 기원설에는 찬성하였다.

지식의 전파는 전파하는 측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때로 수용하는 측의 선택에 의해 좌우된다. 당시의 일본 학계에서 아직 정설로 인정되지 않았던 라쿠페리의 ‘서래설’은 시라카와 지로, 고쿠부 다네노리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저술한 『支那文明史』를 통해 청 말기 중국의 지식인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1903년 『支那文明史』의 중국어판이 도쿄와 상하이에서 거의 동시에 간

116) 丁謙, 「中國人種從來考」, 浙江圖書館編, 『穆天子傳地理考證』附錄.

117) 愛德華 薩義德(Edward W. Said)(1990), 『東方學』, 王宇根譯, 三聯書店.

행된 뒤 라쿠페리의 '서래설'은 주로 강소성(江蘇省), 절강성(浙江省), 호남성(湖南省) 출신의 지식인 그룹에 공유된 '공공의 지식'이 되었다. 류스페이, 장빙린, 타오청장, 황지에, 쑹자오런은 배만 혁명의 정치적 의도나 한족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이유에서 '서래설'에 관심을 가졌다. 배만 혁명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래설'의 지지자들은 많긴 적긴 간에 황제를 둘러싼 내셔널리즘 신화의 상상에 가담하였다.

『支那文明史』의 복수의 중국어 번역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中國文明發達史』이다. 번역의 취지에 대해 역자 헤이핑(黑風)의 친구인 형양이티엔(橫陽翼天, 본명은 會鯤化)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감오(1895년-인용자)에 중국은 태평양의 강풍에 흔들려 이등의 반개화국이 되고, 병자에 중국은 세계 오대양의 조우(黑潮暴雨)에 무너져 삼등의 야만국으로 전락하였다. 현재 중국은 만주가 러시아에 병합되고, 남월(南粵, 광둥, 광서의 남부-인용자)이 프랑스에 유린당하고, 영국, 미국, 독일, 일본은 호시탐탐 강변과 연안의 모든 요새를 노리고 있다. 결국 국가로서 상대하지 않는 열등의 동물 세계로 떨어지고 말았다.

여기에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중국이 열강에 유린당하고 망국망종(亡國亡種)에 처한 것에 대한 위기감이 배어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형양이티엔은 비록 중국 문명이 조락하고 '야만족'인 만주족에 지배당했다고 해도 "우리 선조의 활달하고 자유로운 국민운동의 중국은 결코 소멸하지 않는다"고 주장, 또한 헤이핑은 "조국 입국의 근본"이 망각된 것을 통탄해 하며 사회학, 인류학, 고고학, 정치학 등의 관점에서 중국의 문명사를 기록한 『支那文明史』를 "연구의 범위가 방대하고 연찬이 극히 정교하고 세밀하다"고 높게 평가하고, 그 번역을 통해 망국의 길로 이끄는 '전제정치'와 '노예 학살'이라는 양대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형양이티엔은 "우리나라의 애국자는 그 뜻을 펼쳐 모든 더럽고 탁한 사회를 파괴시키고 완전한 사회로 개조하

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¹¹⁸⁾ 『中國文明發達史』가 출판된 직후 형양이티엔은 자신이 편찬한 『中國歷史』에서 "동양 역사가는 일찍이 말하기를 지나의 역사는 한인종(漢人種)의 역사이다.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규모를 이룬 것은 한인종의 덕택이다. 한인종의 선조는 타미르 고원으로부터 동으로 와서 지금의 서북 지역에 안착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¹¹⁹⁾ 그러나 저자는 이 책의 원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고고학자가 먼 고대의 역사를 조사한 결과 지금부터 4500여 년 전에 황제 홀로 아시아의 서남부에서 동으로 가서 황하 남북에 자리를 잡았다. 가장 강한 번식력, 가장 강한 팽창력, 가장 강한 경쟁력의 소유자였던 그는 불과 수십 년 사이에 포효하여 동(懂), 요(堯)등 남방의 각 족을 물리치고 그 자손을 신주 대지에 확산시켰다."¹²⁰⁾ 저자가 여기서 서술하는 것은 바로 중국인의 선조가 바빌론에서 이주해 왔다는 '서래설'이었다.

허치형(許之衡)은 「讀『國粹學報』感言」에서 "최근 황제에 대한 존경은 매우 열렬하다. 황제를 민족의 시조로 여겨 민족주의를 창도함으로써 동포를 꿈에서 깨어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¹²¹⁾ 내셔널리즘의 원류를 황제에서 구하는 의의에 대해서 타오청장은 그의 저서 『中國民族權力消長』의 제1장에서 민족의 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동을 설명하는 것은 선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선조를 분명히 하는 것은 선조를 중요시 하기 위해서이다. 선조를 중요시 하는 것에서 선조를 숭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선조를 숭경하는 마음에서 자애하는 마음이 생긴다. 자애하는 마음이 생기면 보수(保守)하는 마음이 저절로 단단해져 단결력이 점점 강해진다. 이것은 근세 민족주의, 민족 제국주의가 대지에 넘치는 원인이다."¹²²⁾ 청

118) 橫陽翼天氏, 1903, 「中國文明發達史·叙論」; 白河次郎·國府種德 著, 1903, 『中國文明發達史』, 黑風氏 譯, 1~2쪽.

119) 橫陽翼天氏, 1903, 「中國歷史」(普通學教科書) 上卷, 東京: 東新譯社, 14쪽.

120) 橫陽翼天氏, 1903, 「中國曆史出世辭」; 橫陽翼天氏, 1903, 앞의 글(주 119), 1쪽.

121) 許之衡, 1905, 「讀『國粹學報』感言」, 『國粹學報』1冊 6期, 3~4쪽.

122) 陶成章, 1904, 「中國民族權力消長史」, 湯志鈞 編, 『陶成章集』, 228쪽.

말기의 배만 내셔널리스트들에게 ‘황제는 바빌론에서 왔다’는 ‘서래설’의 스토리는 한족의 상징을 부여해 주는 절호의 것이었다. 진화론의 직선적인 역사 서술 속에서 바빌론에서 온 황제나 그가 이끈 바크족은 만주족과 한족을 구별해 줄 뿐만 아니라 서에서 동으로 북에서 남으로 정복자로서의 황제의 이미지는 강인함, 진보 등 근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라쿠페리도 시라카와와 고쿠부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황제 내셔널리즘의 구축에 있어서 류스페이, 장빙린 등은 전통적인 ‘소학(小學)(고증학)에 근거하여 라쿠페리의 ‘언어 과학’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그들이 바빌론의 황제에 친근함을 느끼는 것은 자신들의 지식 체계 내에서 쉽게 황제 이야기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래설’을 둘러싼 중국어 문헌의 텍스트 비교가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청말 지식인들의 ‘서래설’ 수용에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류스페이(1903)와 장빙린(1904)은 ‘황제는 바빌론에서 왔다’는 라쿠페리의 가설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둘째, 타오칭장(1904)은 황제가 이끈 바크족의 이동 노선을 바빌론에서 중앙아시아(곤륜산)로, 그리고 다시 동아시아로 2단계로 나누고 있다. 셋째, 황지에(1905)는 서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로의 이동 과정을 생략하고 오로지 중앙아시아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한 과정을 ‘서래설’이라고 하였다. 그 결과 곤륜산에서 바크족을 이끌고 온 황제는 진짜 중국의 황제가 되었다. 이렇게 청말기의 불과 2~3년 사이에 ‘서래설’의 지지자들은 중국 고대의 신화적 존재였던 황제를 ‘바빌론에서 온 황제’로 만들어 내셔널리즘의 제단에 바친 뒤 자신들의 손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청 말기에 일본을 경유해서 중국에 전파된 라쿠페리의 ‘서래설’은 일종의 정치화된 근대지로서 이것을 수용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해석했다. 청 말의 지식인들은 배만 혁명을 위해 ‘서래설’을 이용하여 한족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서래설’이 오히려 한족의 외래성을 부각시켜 배만 혁명의 정치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주저 없이 ‘서래설’을 폐기하였다.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우리는 중국의 내셔널리즘의 기원에 대해 논할 때 중국의 내셔널리즘을 직선적 시계열 속에서 파악하는 방법론에 내재된 ‘정치’에 의심의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Terrien de Lacouperie(1880), *Early History of the Chinese Civilisation*, London.
- _____ (1887), *The Languages of China Before the Chinese*, London.
- _____ (1892), *The Oldest Book of the Chinese, The Yh King and its Authors, VOL.1.: History and Method*, London.
- _____ (1892), *Catalogue of Chinese Coins from the VIIIth Cent. B.C. to A.D.621*, London and Paris.
- _____ (1894), *Western Origin of the Early Chinese Civilisation from 2300 B.C. to 200 A.D.*, London: Asher.
- _____ (1894), *Beginnings of Writing in Central and Eastern Asia, or Notes on 450 Embryo-Writings and Scripts*, London.
- _____ (1888), "The Old Babylonian Characters and Their Chinese Derivates," *The Babylonian and Oriental Record*, Vol.2 No.4.
- _____ (1890), "The Onomastic Similarity of Nai Hwang-ti of China an Nakhunte of Susiana," *The Babylonian and Oriental Record*, Vol.4 No.11.
- _____ (1891), "From Ancient Chaldea and Elam to Early China:A Hisroical Loan of Culture," *The Babylonian and Oriental Record*, Vol.5 No.4.
- 那珂通世 編, 1888, 『支那通史』, 東京: 大日本圖書株式會社.
- 顧燏剛, 鐘麟編, 胡適校, 1925, 『現代初中教科書本國史』(上册), 商務印書館.
- 白河次郎·國府種德, 1903, 『帝國文明史』(『支那文明史』), 東華譯書社 編譯, 上海: 會文學社.
- _____, 1903, 『中國文明發達史』, 黑風氏 譯, 東新譯社.
- _____, 1903, 『支那文明』, 上海競化書局 編譯, 東新譯社.
- 桑原隲藏, 1968, 『中等東洋史』(1898), 『桑原隲藏全集』四卷, 岩波書店.
- 桑原隲藏 著, 1899, 『東洋史要』, 樊炳清 譯, 東文學社.
- 小川銀次郎 著, 1902, 『東洋史要』, 屠長春 譯, 商務印書館.

市村瓊次郎 著, 光緒年間, 『支那史要』, 陳毅 譯, 廣智書局.

艾約瑟, 1900, 『西學啓蒙十六種, 西學略述』卷二, 上海: 圖書集成印書局.

蔣智由, 1906, 『中國人種考』, 橫濱: 新民社.

烏居龍藏 編輯, 1903(초판), 1904(재판), 『人種誌』, 林楷青 譯, 閩學會.

2. 단행본

- 白川靜, 1999, 『白川靜著作集6—神話と思想』, 平凡社.
- 森雅子, 2005, 『西王母の原像—比較神話學試論』, 慶應義塾大學出版會.
- 小林武, 2006, 『章炳麟と明治思潮—もう一つの近代』, 研文出版.
- 新疆天山天池管理委員會 編, 2008, 『西王母文化研究集成』(論文卷)上, 廣西師範大學出版社.
- 李孝遷, 2007, 『西方史學在中國的傳播』, 華東師範大學出版會.
- 後藤末雄, 矢澤利彦 校訂, 1969, 『中國思想のフランス西漸』2, 平凡社.
- Stefan Tanaka(1993), *Japan's Orien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3. 논문

- 吉開將人, 2008, 「苗族史の近代—漢族西來說と多民族史觀」, 『北海道大學文學研究科紀要』124期.
- 島下美喜, 1998, 「清末留日學生と‘黃帝紀元’」, 『千里山文學論集』60號.
- _____, 2003, 「樽本照雜誌の黃帝紀元—日曆新聞」, 『清末小説から』71號.
- 羅志田, 2002, 「包容儒學儒學, 諸子與黃帝的國學: 清季士人尋求民族認同象徵的努力」, 『臺大歷史學報』29期.
- 孫江, 2006, 「連續性與斷裂—清末民初歷史教科書里的黃帝敘述」, 王笛主 編, 『時間, 空間, 書寫』(新社會史3), 浙江人民出版社.
- _____, 2008, 「連續と斷絶—二十世紀中國歷史教科書における黃帝敘述」, 『中國研究月報』10月號.
- _____, 2009, 「差異化された皮膚—近代日中教科書における人種敘述」(한글), 『大東文化研究』65號.
- 孫隆基, 2000, 「清季民義主義與黃帝崇拜之發明」, 『歷史研究』3期.

- 石川禎浩, 2002, 「20世紀初頭の中國における『黃帝』熱」, 『二十世紀研究』 3期.
- 沈松橋, 1997, 「我以我血薦軒轅—黃帝神話與晚清的國族建構」, 『臺灣社會研究季刊』 28期.
- 楊思信, 2003, 「拉克伯里的“中國文化西來說”及其在近代中國的反響」, 『中華文化論壇』 2期, 四川省社會科學院.
- 王仲孚, 1976, 「‘中國民族西來說’之形成與消寂的分析」, 『中國歷史學會集刊』 8期 (臺北).
- 李帆, 2005, 「民族主義與國際認同之間—以劉師培的中國人種, 文明西來說爲例」, 『史學理論研究』 4期.
- _____, 2008, 「關於拉克伯里學說進入中國的若干問題」, 『西南民族大學學報』 2期.
- 焦潤明·王建偉, 2004, 「晚清‘紀年’論爭之文化解讀」, 『遼寧大學學報』 6期.
- 村田雄二郎, 1992, 「康有爲與孔子紀年」, 『學人』 二輯, 江蘇文芸出版社.
- 坂元ひろ子, 2004, 「中國民族主義の神話—進化論, 人種觀, 博覽會事件」, 『思想』 849(1995), 『中國民族主義の神話』, 東京: 岩波書店.
- 橫陽翼天氏, 1903, 「中國歷史」(普通學教科書) 上卷, 東京: 東新譯社.

Abstract

Babylonian Origins of Huang Di (The Yellow Emperor)

— Lacouperie’s Sino-Babylonianism and its Spread to East Asia —

Jiang Sun (Shizuoka University of Art and Culture, Japan)

■ Key Word : Sino-Babylonianism, Huang Di, Terrien de Lacouperie, Japanese Sinology, Chinese translations

This paper traces the European theory of Sino-Babylonianis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duction and re-production of modern knowledge.

During the 1880s~1890s, Terrien de Lacouperie proposed a hypothesis that Chinese migrated in prehistoric times from the region of Chaldea in Mesopotamia. Lacouperie asserted that his conclusions were based on comparative methods, called “language science” and “history science”. Lacouperie got many hints from Assyriology in the age of Victorian Britain, but he was strongly criticized by first-class Sinologists of the period.

Nevertheless, Japanese Sinologists paid attention to Lacouperie’s theory from the 1890’s to the 1910’s. Although Jitsuzo Kuwabara criticized Lacouperie’s Sino-Babylonianism, Yonekichi Miyake and Kurakichi Shiratori supported this idea. In these terms, in 1900, Jiro Shirakawa and Tanenori Kokubu reiterated

Lacouperie's opinion in their book *History of Chinese Civilization*, a book which had enormous influence upon Chinese intellectuals when it was subsequently translated into Chinese.

In 1903, four different Chinese translations of *History of Chinese Civilization* were published in Tokyo and Shanghai. Those who were interested in Sino-Babylonianism were mainly anti-Manchu revolutionaries and Chinese conservatives, who wanted to create a racial revolution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 Chinese identity. However, they discarded this idea immediately without hesitation, as soon as they discovered that the Han (Chinese) themselves would be described as immigrants according to Sino-Babylonianism.

In conclusion, this paper questions the historical narrative which describes modern Chinese nationalism as a linear history, neglecting major differences among various texts.